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

2021.11.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

## 제 출 문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 지 현 (인)



## 목차

<b>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b>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	4
<b>제2장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체계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b> .....	6
제1절 대구시 아동인구 현황과 동향 .....	6
제2절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 체계 현황 .....	9
제3절 주요 지자체 별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12
1. 서울시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12
2. 부산시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13
3. 경기도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13
<b>제3장 대구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2차자료 분석결과(설문조사)</b> .....	1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5
1. 표본구성과 조사방법 .....	15
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7
제2절 조사결과(1):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돌봄공백 .....	19
1. 가장 힘들었던 자녀의 돌봄 시기 .....	19
2. 자녀돌봄 공백시기 .....	20
제3절 조사결과(2):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현황 및 인식 .....	24
1. 초등자녀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식률 .....	24
2.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	24
제4절 조사결과(3):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욕구 .....	28
1.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계획(욕구) .....	28
2. 대구시 초등학교 아동 수 고려 공적돌봄 수요 추정 .....	29
3.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시간 .....	30
4. 공적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 .....	31
제5절 소결 .....	33
<b>제4장 대구시 방과후돌봄 서비스 관련 주 양육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분석결과</b> .....	34
제1절 조사 방법 및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34

1. 조사방법 .....	34
2.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	35
제2절 주 양육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	37
1.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과 활용되었던 대처전략들 .....	37
2.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욕구가 미충족되는 공적 돌봄 .....	45
3. 대구시 공적돌봄에 대한 개선의견 .....	60
<b>제5장 결론 및 제언 .....</b>	<b>69</b>
제1절 결론 .....	69
제2절 제언 .....	72
<b>참고문헌 .....</b>	<b>76</b>
<b>부록1. 서울시 성북구 아이돌봄 통합지원 조례 .....</b>	<b>77</b>
<b>부록2. 충청남도 아이돌봄 통합지원 조례 .....</b>	<b>81</b>

## 〈표 차례〉

〈표 2-1〉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인구 현황(2020.4.1.부) .....	6
〈표 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12세 공적돌봄체계 추진계획 .....	9
〈표 2-3〉 대구시 초등돌봄교실 현황 .....	10
〈표 2-4〉 대구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	10
〈표 3-1〉 설문조사 항목 .....	16
〈표 3-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7
〈표 3-3〉 코로나19 종료 이후 공적 돌봄 이용 욕구 .....	28
〈표 4-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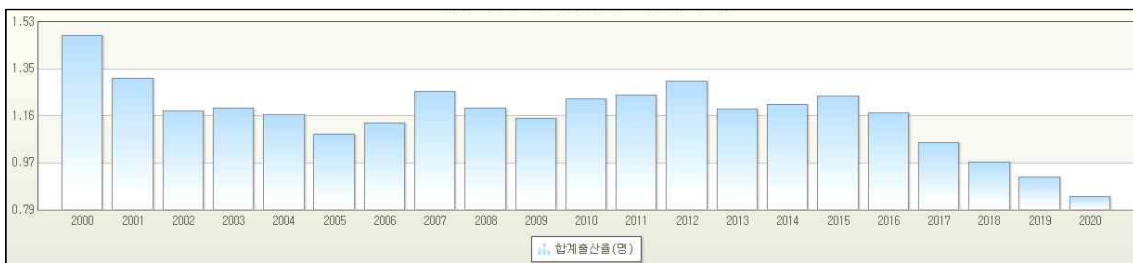
##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00~2020) (출처: 통계청) .....	1
〈그림 2-1〉 연도별 초등학생 수 변화 .....	7
〈그림 2-2〉 연도별 초등학생 추이 예상 현황(1~3학년) .....	8
〈그림 2-3〉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사업 개요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	12
〈그림 3-1〉 설문조사 대상 초등학생 수 모집단 및 표본 비율 .....	16
〈그림 3-2〉 첫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 .....	19
〈그림 3-3〉 둘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 .....	20
〈그림 3-4〉 자녀 돌봄의 공백이 가장 심한 시간 .....	21
〈그림 3-5〉 시간대 별 자녀돌봄 공백비율 .....	22
〈그림 3-6〉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 .....	23
〈그림 3-7〉 초등자녀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식을 .....	24
〈그림 3-8〉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25
〈그림 3-9〉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별 선택의 이유 .....	26
〈그림 3-10〉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	26
〈그림 3-11〉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7
〈그림 3-12〉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희망 시간 .....	30
〈그림 3-13〉 공적돌봄 서비스 선택사유 별 중요성 인식 .....	31
〈그림 3-14〉 공적돌봄 제공장소 선호도 .....	32
〈그림 5-1〉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대구시 방과후돌봄기관 검색 화면(21.11.10 현재) .....	74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가정 내 자녀양육 및 돌봄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4.530명에서 2000년대 이후 지속 감소하였음.
  - 2000년 합계출산율 1.480명이었으나, 2018년 이후 1.0명 미만으로 감소하여, 최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0명을 기록하고 있음(통계청, 2021).



〈그림 1-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00~2020) (출처: 통계청)

-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돌봄 부담의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돌봄 기관 별 서비스의 분절, 서비스 제공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교육 의존의 심화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방과후 돌봄의 욕구 충족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각각 별도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부는 현재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교육부의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방과후 돌봄체계이며, 각 돌봄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욕구 미충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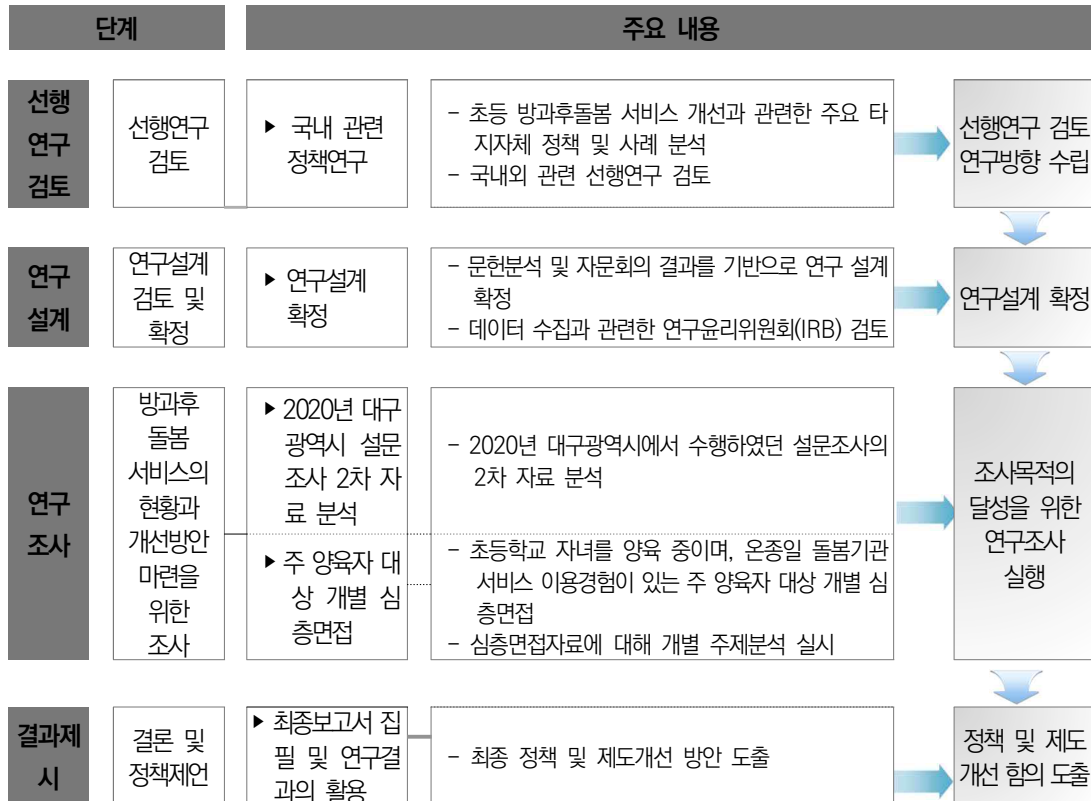
- 2018.4월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요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인프라 구축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계에 놓여 있음.
  - 무상보육 중인 0~5세와 달리 초등학생(7~12세)의 방과후 돌봄공백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정규수업시간을 제외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2018.4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함.
  - 학교돌봄은 주로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마을돌봄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어린이집,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각 돌봄체계의 지역 내 서비스 간 분절성과 시간 공백의 발생, 공급 부족 등의 상황으로 충분한 방과후돌봄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대구광역시도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돌봄 및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음.
  - 2020년 상반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지역 대유행 상황과 지속되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대구광역시 내 초등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
  - 대구광역시는 2020년 『대구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배성우 교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 내 돌봄기능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9.8.12. 제정 및 시행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구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돌봄 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돌봄기관 간 역할 기능이 조율될 필요가 있고, 현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은 어떠한가 대구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주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구시의 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던 대구광역시 연구용역과제 『대구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2차적 활용을 통해 대구시 온종일 돌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
- 대구광역시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자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방법

○ 본 연구의 흐름은 아래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체계도

### □ 연구내용

○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분석
- 국내 관련 주제 선행연구 검토 및 합의 도출

○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자(주 양육자) 대상 욕구 및 돌봄 현황 분석(2차 자료 분석)

- 2020년 대구광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었던 2차 설문조사 데이터(인구비례 할당표집을 통해 도출한 1,055명 조사자료) 분석

- 초등자녀 주 양육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방과후 돌봄 이용의사, 만족도 및 욕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 도출

○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초등자녀 주 양육자 대상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돌봄 어려움 파악

- 2020년 대구광역시 연구용역에서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주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는 개별적인 심층적 경험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주 양육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경험과 돌봄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
- 국내 관련 주제 논문 및 학술보고서 검토

○ 2020년 대구광역시 용역연구의 2차 자료 분석

- 2020년 대구광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었던 2차 설문조사 데이터(인구비례 할당표집을 통해 도출한 1,055명 조사자료) 분석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초등자녀 주 양육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 대구광역시 내 거주하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초등자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
- 심층 면접내용은 필사 후 필사본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 실시

## 제2장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체계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제1절 대구시 아동인구 현황과 동향<sup>1)</sup>

- 대구시 아동인구현황(대구통계, 2021).
  - 2021.8.31. 기준 대구광역시의 전체 인구는 2,393,626명이며, 이 중 유소년인구(0~14세)는 278,072명으로 전체 인구 중 11.62%를 차지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유소년인구 비중은 2020.1월 전체 인구의 12.07%였으나, 2021.8월 현재 11.62%로 감소하여 지속적 감소 추세에 놓여 있음.
  
- 초등학생 인구현황(2020.4.1.부)
  - 2020.4.1.부 초등학생 인구현황은 아래 표 2-1과 같음.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인구 수는 총 122,587명임.
  - 각 구군 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달서구가 30,302명(24.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수성구 23,136명(18.87%), 북구 21,942명(17.90%), 동구 16,767명(13.60%), 달성군 16,491명(13.45%) 등의 순으로 확인됨.
  - 학년 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주로 2012년생)이 가장 많은 21,447명(17.50%)이었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주로 2011년생)이 20,842명(17.00%)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표 2-1〉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인구 현황(2020.4.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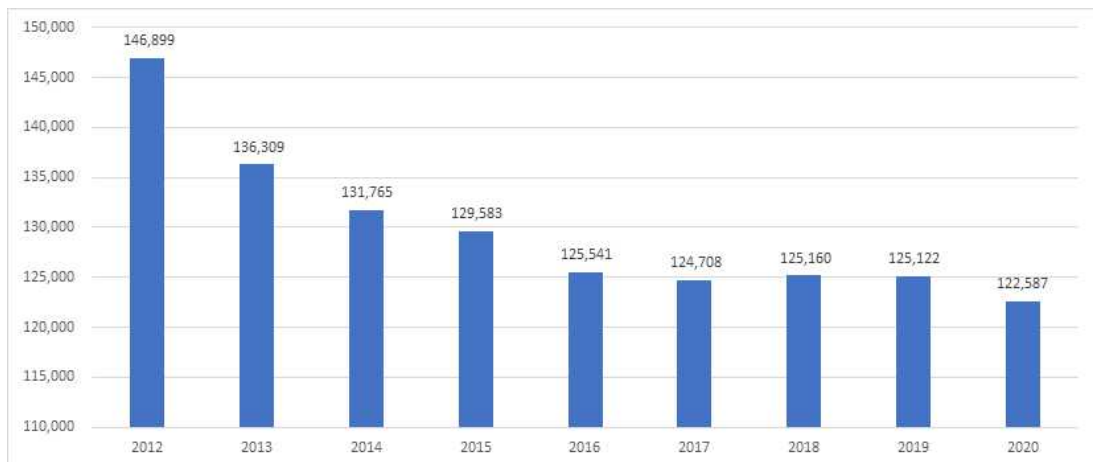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초1	717	2,723	869	720	3,458	3,323	4,632	2,880	19,322 (15.76%)

1)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대구시 통계 최신자료에서 인구현황은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유소년인구를 별도로 분류하여 계산함. 단위연령 별 인구통계 자료는 2020년에 확보한 2020.4.1. 부 대구광역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힘.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초2	764	3,016	983	718	3,846	3,801	5,290	3,029	21,447 (17.50%)
초3	768	2,860	935	712	3,762	3,770	5,113	2,922	20,842 (17.00%)
초4	699	2,817	883	686	3,660	3,927	5,226	2,851	20,749 (16.93%)
초5	651	2,623	858	676	3,477	3,980	4,969	2,321	19,555 (15.95%)
초6	655	2,637	917	739	3,739	4,335	5,162	2,488	20,672 (16.86%)
계	4,254 (3.47%)	16,676 (13.60%)	5,445 (4.44%)	4,251 (3.47%)	21,942 (17.90%)	23,136 (18.87%)	30,392 (24.79%)	16,491 (13.45%)	122,587 (100.0%)

○ 연도별 초등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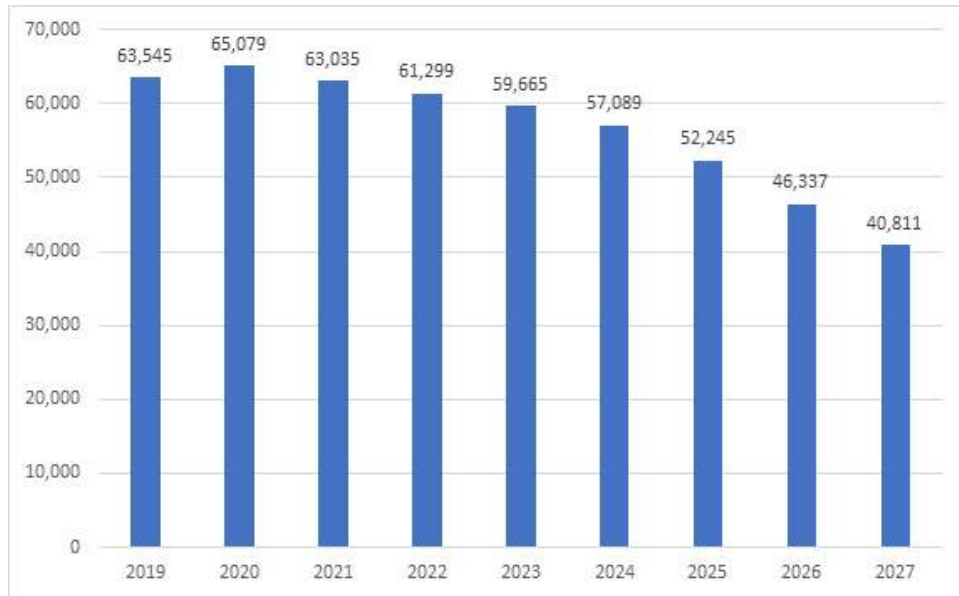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초등학생 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1과 같음.
- 2012년 대구시 초등학생 수는 146,899명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시점에는 122,587명으로 2012년에 비해 16.55%가 감소하였음.



〈그림 2-1〉 연도별 초등학생 수 변화

○ 연도별 초등학생 저학년 인구 전망(1~3학년 학생 수)

- 초등 방과후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의 연도별 추이현황은 아래 그림 2-2와 같음.
- 2020년 65,079명을 정점으로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는 40,811명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3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2〉 연도별 초등학생 추이 예상 현황(1~3학년)

## 제2절 대구광역시 방과후 돌봄 체계 현황

### ○ 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 핵가족화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하였음.
- 0~5세는 무상보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책임보육이 진행 중이지만,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간대(16시 이후)에 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표 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12세 공적돌봄체계 추진계획

연령 시간	영유아(315만명)							초등학생(267만명)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시	국가 책임 보육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					초 등 책 임 돌 봄	▶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					
13시- 19시								▶초등돌봄교실(24만명)					
19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아동센터 등(9만명)					

\* 자료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일부 내용

-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공적돌봄체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한 학교돌봄체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마을돌봄체계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당시 2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학교돌봄(주로 초등돌봄교실)을 34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9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은 19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 ○ 학교돌봄체계: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까지의 학생임.

- 2020.4.1.부 대구시 초등돌봄교실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5개 학교 590개 학급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06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음.

〈표 2-3〉 대구시 초등돌봄교실 현황

구분	전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학교 수(개)	225	9	31	17	11	38	33	55	33
학급 수(개)	590	21	81	31	27	112	78	145	95
이용 학생 수(명)	11,906	415	1,661	649	505	2,319	1,487	2,798	2,072

※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2020년 교육통계자료(2020.4.1. 현재)

○ 마을돌봄체계(1):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①보호 및 교육, 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③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과 같은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1)
- 2018년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혼합(social mix)를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별 정원 내 80% 이상은 돌봄 취약아동이 이용가능하며, 비 취약아동은 20% 범위 내 등록이 가능함.
- 돌봄취약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2-4〉 대구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분	전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센터 수(개)	199	5	26	33	12	45	16	31	31
아동 수(명)	5,161	133	606	919	298	1,124	426	810	845

※ 출처: 대구광역시 내부자료(2019.12월 기준)

○ 마을돌봄체계(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

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용대상: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중에 있음.

- 이용대상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가정(한부모, 조손, 장애, 다자녀, 맞벌이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을 우선 선발하며,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대구시는 14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정원 아동 수는 총 460명임.

○ 마을돌봄체계(3):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각 지자체 별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구시에는 수성구와 남구에 각각 1개씩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이용정원 아동 수는 총 54명임.

○ 마을돌봄체계(4):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로 각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이용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센터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설치가 가능함.
- 대구시에서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8개 구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총 15개 나눔터 사업이 운영 중에 있음.



### 제3절 주요 지자체 별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1. 서울시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18년 이후 “틈새 없는 초등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를 기치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핵심적 과제로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2019년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2019년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2019년 서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접근성과 안전성이 담보될 경우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의사가 32.3%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이혜숙, 2019).
-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초등돌봄 인프라를 마을 단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아래 그림 2-3과 같이 공적 돌봄체계와 마을 단위의 공동육아공간 연계체계를 확충하고 있음.
-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마을 기반 돌봄체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과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림 2-3〉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사업 개요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 2. 부산시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부산시는 2019년 「부산광역시 마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내 자체적인 자녀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2020년 이후 마을단위의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협력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부산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부산아이다가치키움'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일원화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8개의 공동육아나눔터와 17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209개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서비스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돌봄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3. 경기도 방과후돌봄 사업 추진 현황

-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온종일 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2019년 1월에 '경기도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아동 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 신설,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시행, '아동돌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지역 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 등 본격적 아동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46개소, 작은 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 마을 기반 돌봄 기관을 10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19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음.
-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공동체(10명 이상 주민 모임)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보육, 공동육아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의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공모·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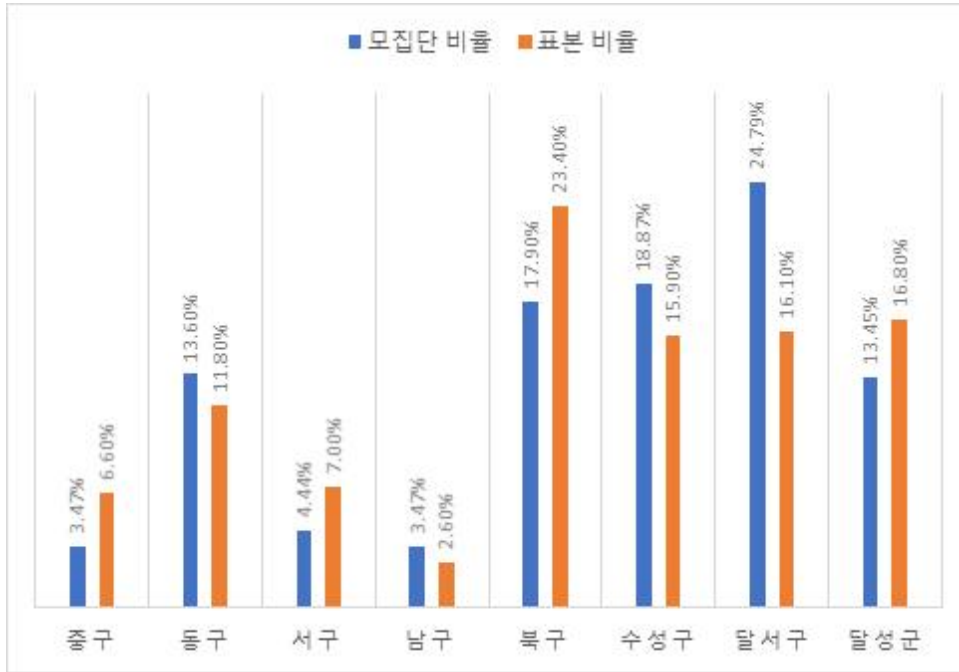
- 마을 내 작은 도서관에 돌봄 기능을 추가한 돌봄형 도서관을 선정하여 방과 후 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품앗이 육아 나눔터를 통해 다양한 마을 기반 아동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3장 대구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2차자료 분석결과(설문조사)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 표본구성과 조사방법

- 본 내용은 대구광역시에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던 『대구광역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연구책임: 경북대학교 배성우 교수)에서 수행되었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에 대해 연구책임자와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의 허락 하에 재가공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한 것임.
- 설문조사 대상은 2020.4.1.부 대구광역시 초등학교 인구 수 122,587명을 기초로 이들의 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구·군별 초등학교 인구 수에 따라 비례할당표집을 실시하여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비례할당표집된 최종 표본 수는 1,015명이었고, 인구 대비 표본추출확률은 0.83%이었음.
- 설문조사는 2020.8월부터 9월까지 약 5주에 걸쳐 웹 기반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회수된 1,055건 중 참여 동의를 없었거나 초등학교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40건을 제외하고 최종 1,015건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 2020.4.1.부 자치구 별 초등학교 인구 수는 달서구가 30,392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성구 23,135명(18.9%), 북구 21,942명(17.9%), 동구 16,676명(13.6%), 달성군 16,491명(13.5%), 서구 5,445명(4.4%), 중구 4,254명(3.5%), 남구 4,251명(3.5%) 등의 순이었음.
  - 이에 따라 아래 그림 3-1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인구비례보다 과대표집된 지역(중구, 서구, 북구, 달성군)과 과소표집된 지역(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구군별 인구 비례에 맞추어 조사가 이뤄졌음.



〈그림 3-1〉 설문조사 대상 초등학교 수 모집단 및 표본 비율

○ 설문조사 내용

-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은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연구책임: 서울연구원 이해숙)의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음.
- 설문조사 초안이 완성된 후 1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시행하여 설문지의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함.
- 최종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아래 표 3-1과 같음.

〈표 3-1〉 설문조사 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특성	성별, 아동과의 관계, 출생연도, 최종학력
	가구 특성	거주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맞벌이 여부, 자녀 양육 현황(연령, 힘든 돌봄 시기 등), 돌봄 공백 등
방과 후 돌봄 이용현황	공적 돌봄 인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식수준, 인식 경로
	공적 돌봄 이용	이용현황, 선택 이유,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방과 후 자녀 돌봄 방법	시간대별 돌봄 방법, 사교육 이용현황
	공적 돌봄 이용현황	각 공적 돌봄별 이용현황, 이용 시간, 하교(원) 방법, 월평균 이용료, 급식 및 간식 이용 여부, 만족도,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 방학 중 돌봄에서 서비스 항목별 중요성 인식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방과 후 돌봄 이용 의사	2020.2학기 이용 의사	공적 방과 후 돌봄 이용 의사, 미이용 시 돌봄계획, 각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별 이용 의사 및 희망 시간
	긴급돌봄 이용 의사	긴급돌봄 필요성 인식, 긴급돌봄 필요 사유, 긴급돌봄 욕구, 적절 시간당 비용 인식,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방과 후 돌봄 기관 역할 인식 및 개선 요구사항	서비스 항목별 중요성 인식	방과 후 돌봄 선택의 기준 인식,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서비스 항목별 중요성 인식
	방과 후 돌봄 기관 특성별 선호	장소 선호(학교 및 학교 외), 돌봄 방식 선호도
	개선방안	대구시 개선 요구사항

## 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응답 수 (명)	비율 (%)
성별	남	145	14.3
	여	870	85.7
아동과의 관계	부모	965	95.1
	(외)조부모	13	1.3
	친척	31	3.1
	기타	6	0.6
연령	20대	19	1.9
	30대	434	42.8
	40대	528	52.0
	50대 이상	34	3.3
최종학력	중졸 이하	14	1.4
	고졸	114	11.2
	전문대 졸	280	27.6
	대졸	528	52.0
	대학원 졸 이상	79	7.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36	3.5
	100~200만 원 미만	94	9.3
	200~300만 원 미만	203	20.0
	300~400만 원 미만	226	22.3

항목		응답 수 (명)	비율 (%)
	400~500만 원 미만	169	16.7
	500~600만 원 미만	133	13.1
	600~700만 원 미만	83	8.2
	700~800만 원 미만	32	3.2
	800만 원 이상	39	3.8
맞벌이 여부	맞벌이하고 있음	618	60.9
	맞벌이하지 않음	397	39.1
초등학생 자녀 수	1명	248	24.4
	2명	595	58.6
	3명	147	14.5
	4명 이상	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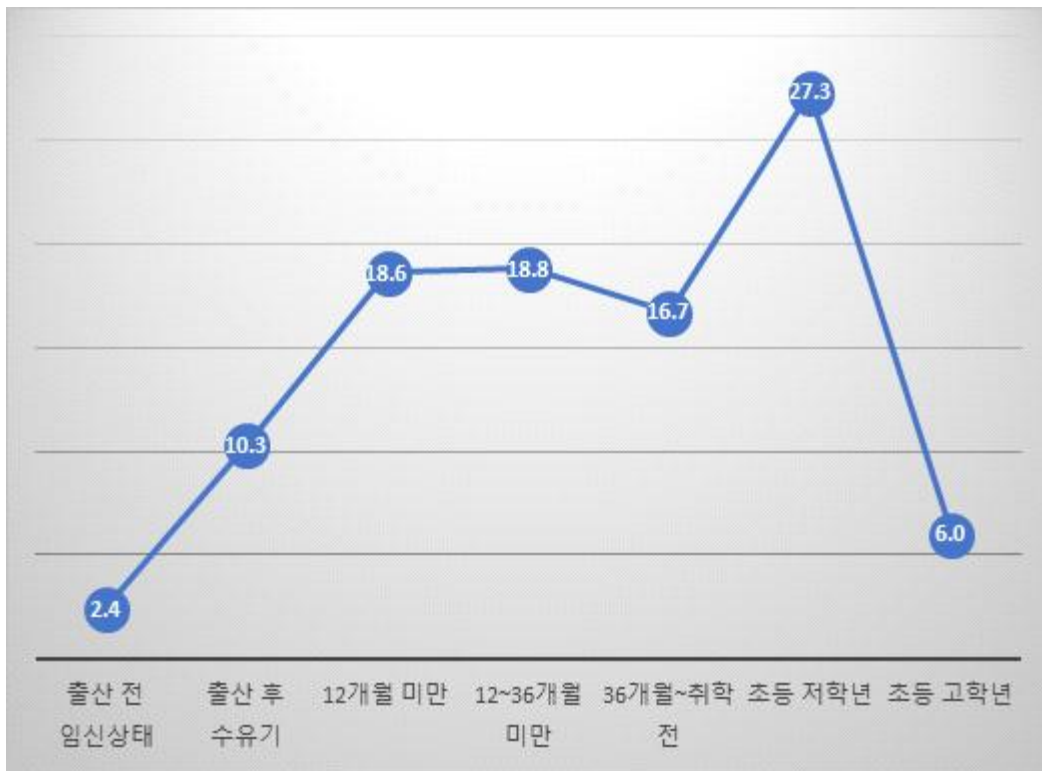
## 제2절 조사결과(1):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돌봄공백

### 1. 가장 힘들었던 자녀의 돌봄 시기

#### ○ 첫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

- 첫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에 대한 조사결과, 총 99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2와 같음.
- 첫째 자녀 양육 중 초등 저학년 시기가 가장 양육과정에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2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2~36개월 미만(18.8%), 12개월 미만(18.6%)의 순이었음.

(n=990, %)



〈그림 3-2〉 첫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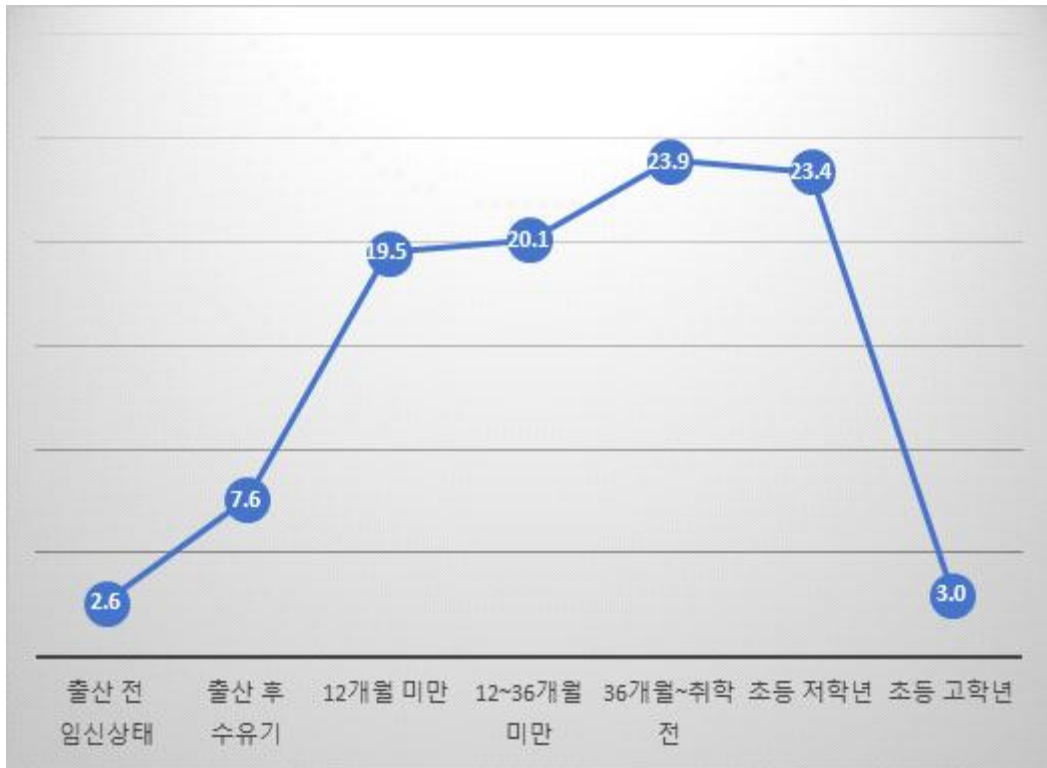
#### ○ 둘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

- 둘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에 대한 조사 결과, 총 740명이 응답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3과 같음.



- 둘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36개월~취학 전을 꼽는 비율은 2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 저학년 시기가 23.4%, 12~36개월이 20.1%, 12개월 미만이 19.5% 순이었음.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초등 저학년 시기가 양육 중 가장 힘든 시기로 여기고 있었음.

(n=740, %)



〈그림 3-3〉 둘째 자녀 양육 중 가장 힘들었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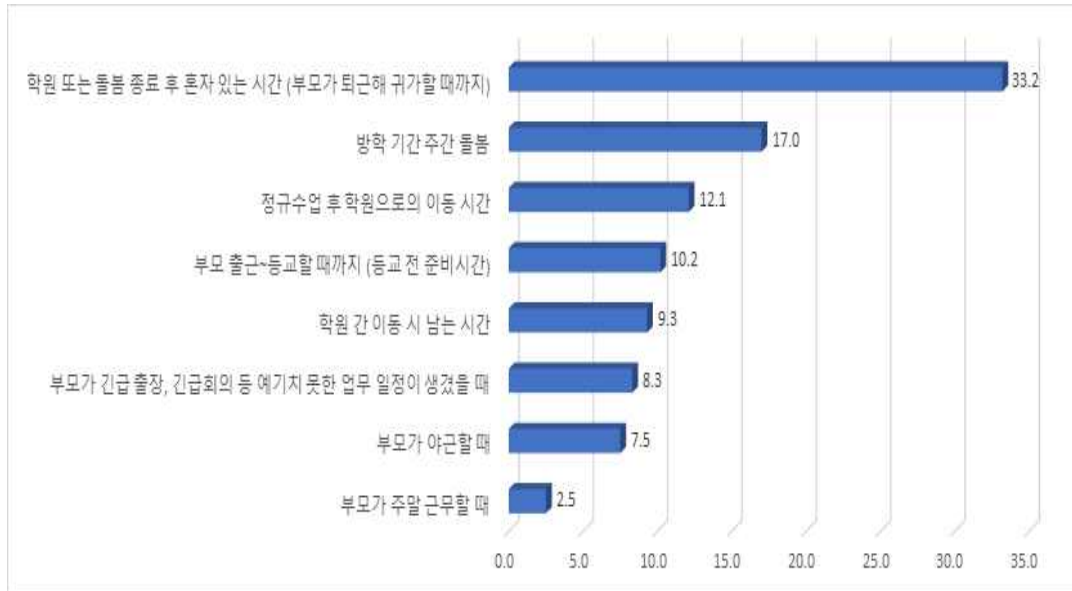
## 2. 자녀돌봄 공백시기

### ○ 자녀돌봄의 공백이 가장 심한 시간

- 자녀돌봄 공백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참여자 중 1,003명이 응답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3-4와 같음.
- 응답자 중 3명 당 1명 가량(33.2%)은 “학원 또는 돌봄 종료 후 혼자 있는 시간으로 부모가 퇴근해 귀가할 때까지”가 돌봄공백이 가장 심한 시간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방학 기간 낮 시간”이 17.0%, “정규 수업 후 학원에서의 이동시간”이 12.1%, “출근 후 등교할 때까지(등교 전 준비시간)가 10.2%의 순이었음.

- 즉, 가장 높은 돌봄공백 수요 발생시간은 공적 돌봄 및 학원 종료 후 부모가 퇴근 하기 전 시간일 것으로 추정됨.

(n=1,003, %)



〈그림 3-4〉 자녀 돌봄의 공백이 가장 심한 시간

○ 시간대 별 자녀돌봄 공백 비율

- 시간대 별 자녀돌봄 공백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3-5와 같음.
- 가장 돌봄 공백의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4~6시였고, 응답자 중 36.7%가 이 시간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음.
- 다음으로 공백 비율이 높은 시간은 오후 2~4시로 20.1%였고, 이어서 오후 6~8시가 17.6%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응답함.
- 상대적으로 야간(오후 8시 이후)은 약 2% 미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4~6시를 1순위로, 다음으로는 2~4시를 2순위로 공적 돌봄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n=1,015, %)



〈그림 3-5〉 시간대 별 자녀돌봄 공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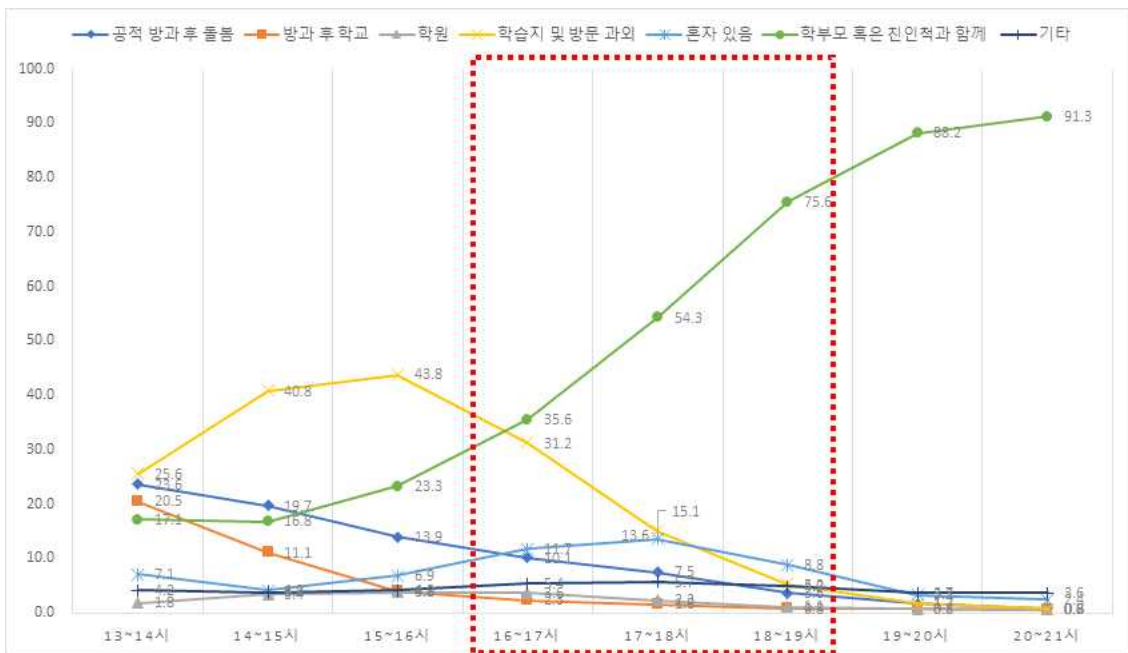
○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

-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시간활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①공적 방과후 돌봄, ② 방과후 학교, ③학원, ④학습지 및 방문과외, ⑤혼자 있음, ⑥학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있음, ⑦기타 등의 7가지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3-6과 같음.
- 첫째, 공적 방과후 돌봄의 이용은 13~14시까지 23.6%였다가 14시~15시에는 19.7%, 15~16시에는 13.9%, 16시 이후로는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둘째, 방과후 학교는 13~14시까지 20.5%였다가 14~15시에는 11.1%의 이용률을 보이다, 15시 이후로는 급감하여 4.0%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 즉, 공적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 학교 등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15시 이후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셋째, 학원의 이용률은 14~17시까지 약 3.4~3.8%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었음.
- 넷째, 학습지 및 방문과외는 13시 이후 16시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3~14시에는 25.6%였다가, 14~15시에는 40.8%, 15~16시에는 43.8%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16시 이후에는 감소하여 17시 이후에는 15% 미만으로 줄어드

는 양상이 확인됨.

- 다섯째, 학부모 또는 친인척과 함께 있다는 응답은 13~14시, 14~15시까지 각각 17.1%, 16.8%였다가 방과후 돌봄과 방과후 학교가 종료되기 시작하는 15시 이후부터 23.3%, 16시~17시에는 35.6%로 증가하여 모든 방과후 시간활용 방법의 1순위로 증가하게 됨. 17시 이후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종합하면, 16시까지는 방과후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 학습지 및 방문과의 등을 통해 시간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나, 이러한 돌봄 체계가 종료되기 시작하는 16시부터 부모나 친인척 등이 돌봄을 본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즉, 16시부터 19시까지 부모의 퇴근 시간 대 돌봄의 공백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 시기에 “혼자 있다”는 응답이 16시~17시에 11.7%, 17~18시에 13.6%로 적지 않았음.

(단위: %)



〈그림 3-6〉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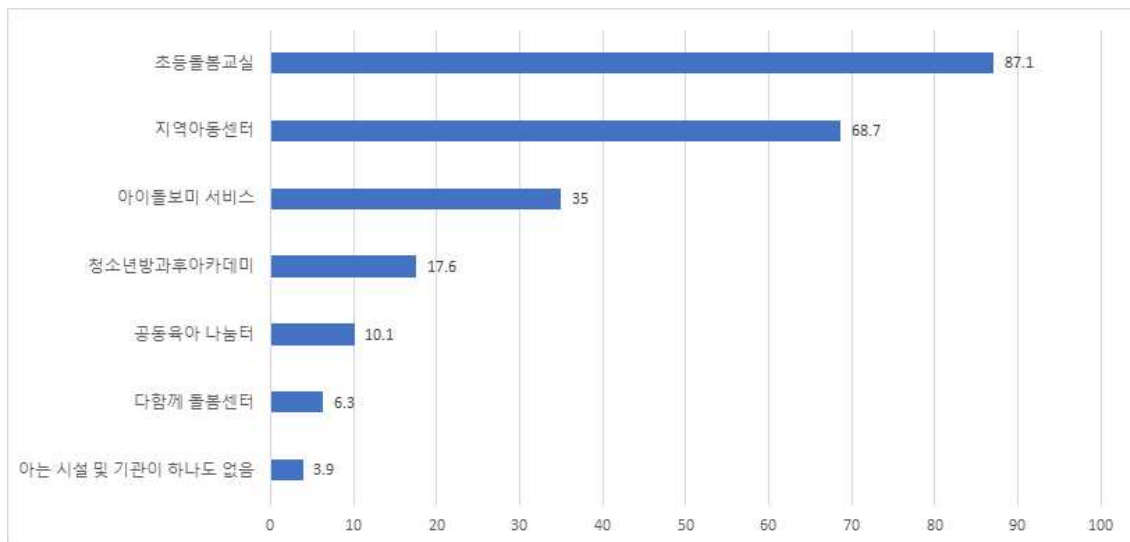
### 제3절 조사결과(2):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현황 및 인식

#### 1. 초등자녀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식률

○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초등자녀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별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 3-7과 같음.

- 초등돌봄교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68.7%,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35.0%의 순이었음.
- 상대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7.6%만이 알고 있었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0.1%, 다함께 돌봄센터는 6.3%의 순으로 확인됨.
- 반면, 아는 사실 및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응답은 3.9%였음. 이는 공적 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응답자는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n=1,015, 단위: %)



〈그림 3-7〉 초등자녀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식률

#### 2.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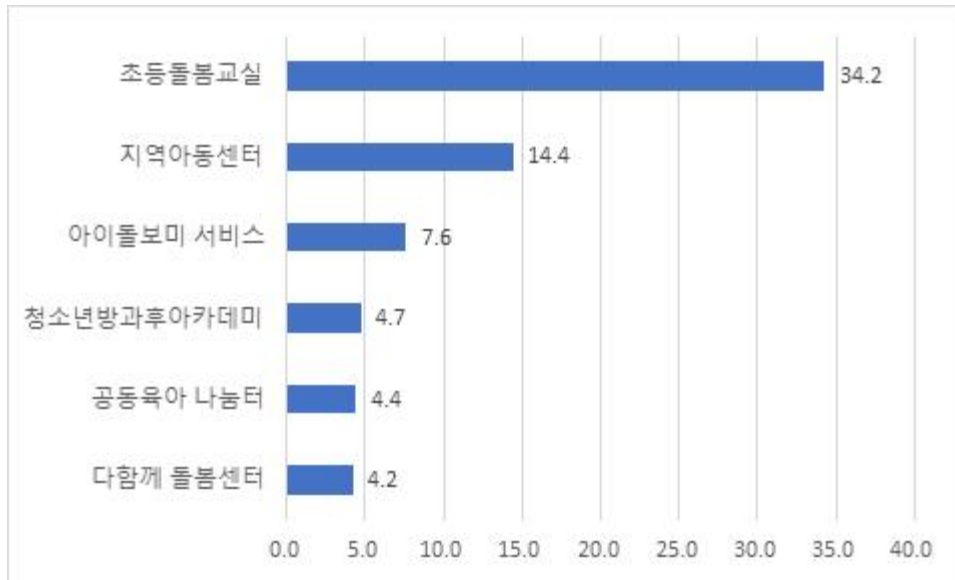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3-8과 같음.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인식률과 비슷한 순위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이용을 했던 기관은 초등돌봄교실이 34.2%로 1위였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가 14.4%

였음.

- 상대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은 10%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음.

(n=1,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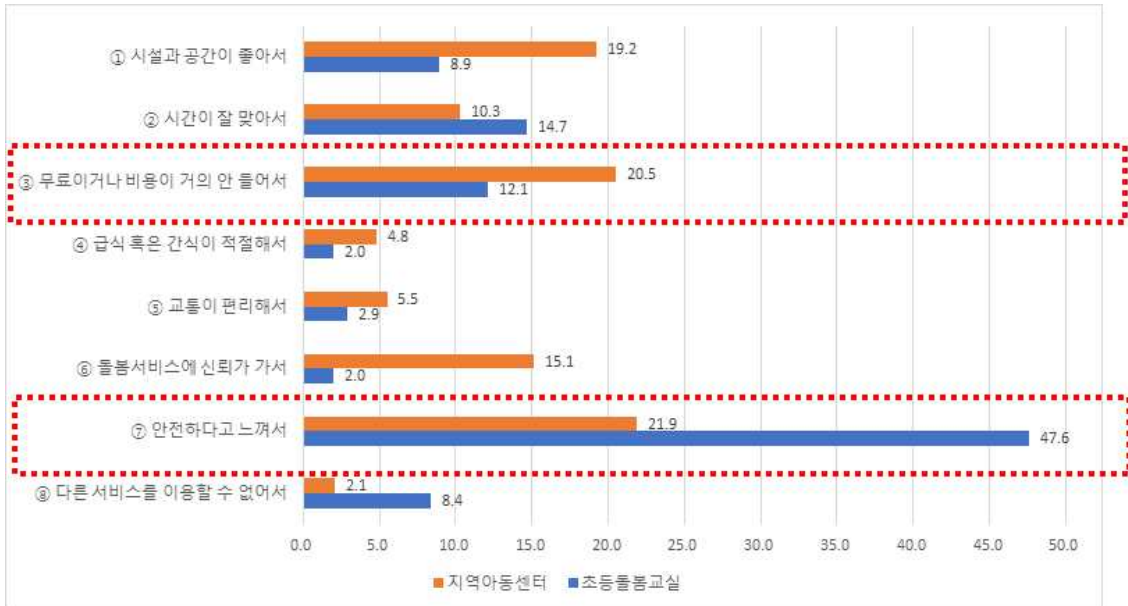


〈그림 3-8〉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선택의 이유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두 곳의 선택 이유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그림 3-9와 같음.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47.6%로 지역아동센터가 21.9%의 이유로 선택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지역아동센터의 선택이유 중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무료이거나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것이 20.5%로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21.9%, 시설과 공간이 좋아서 역시 19.2%로 고른 이유로 선택되고 있었음.
- 종합하면,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학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었음이 확인됨.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선택되고 있지만,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할 때 무료이거나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었음.

(초등돌봄교실n=347, 지역아동센터n=146, 단위: %)



〈그림 3-9〉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별 선택의 이유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1~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6개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음.
- 지역아동센터가 평균 4.02로 이용자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3.73점, 다음이 초등돌봄교실이 평균 3.57점이었음.
-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가 타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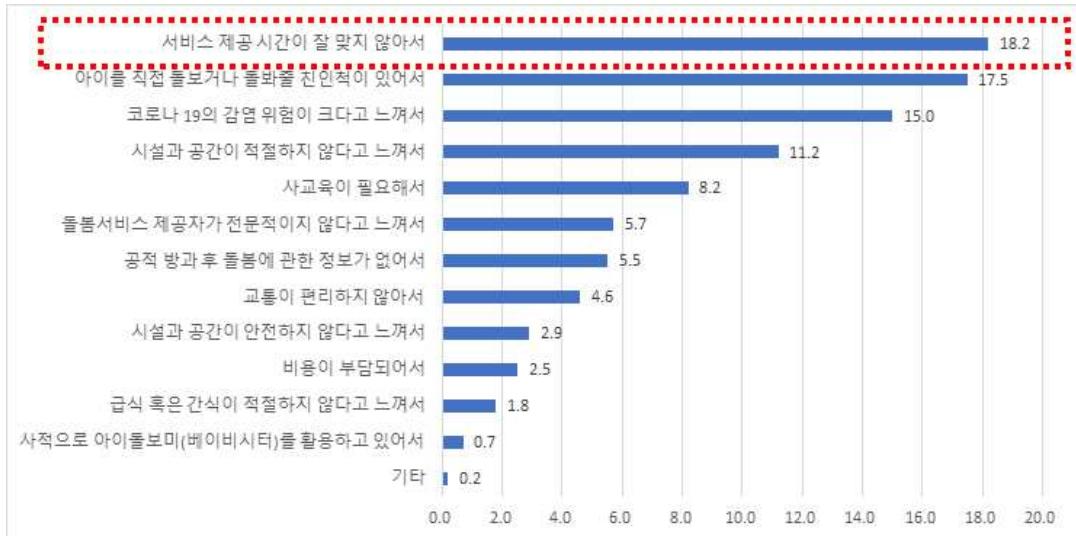


〈그림 3-10〉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3-11과 같음.
- 조사시점이 2020년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등의 감염위험성은 15.0%의 응답을 보였음.
- 그러나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미이용 사유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로 총 18.2%가 이에 응답하였음.
- 두 번째로 “아이를 직접 돌보거나 돌봐줄 친인척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7.5%였는데, 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가 제일 큰 미 이용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n=561, 단위: %)



〈그림 3-11〉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제4절 조사결과(3):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욕구

### 1.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계획(욕구)

#### ○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계획(욕구) 측정 방법

- 설문조사 기간이 2020년 8월~9월이었고, 2020년 3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지역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전의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과 욕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을 전제할 때,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음.
- 또한, 현재의 방과후 돌봄 방법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A), ‘사교육 이용’(B),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사교육 병행’(A&B), ‘공적 방과후 돌봄이나 사교육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음’(C)로 설정하고, 현재의 행동과 미래 계획을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음.

〈표 3-3〉 코로나19 종료 이후 공적 돌봄 이용 욕구

향후 공적 돌봄 이용 의사	현재 방과 후 돌봄 방법	응답 수(명)	비율(%)
코로나19 종료 이후 공적 돌봄 이용 의사 있음 (P <sub>1</sub> )	사교육(P <sub>1</sub> &A)	214	21.1
	공적 방과 후 돌봄(P <sub>1</sub> &B)	54	5.3
	사교육+공적 방과 후 돌봄(P <sub>1</sub> &A&B)	199	19.6
	둘 다 미이용(P <sub>1</sub> &C)	65	6.4
	소계(P <sub>1</sub> )	532	52.5
코로나19 종료 이후 공적 돌봄 이용 의사 없음 (P <sub>0</sub> )	사교육(P <sub>0</sub> &A)	350	34.5
	공적 방과 후 돌봄(P <sub>0</sub> &B)	11	1.1
	사교육+공적 방과 후 돌봄(P <sub>0</sub> &A&B)	56	5.5
	둘 다 미이용(P <sub>0</sub> &C)	65	6.4
	소계(P <sub>0</sub> )	482	47.5
합계		1,014	100.0

#### ○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 분석

- 코로나19 이후 공적돌봄 이용의사가 있음(P<sub>1</sub>)은 총 532명(52.5%)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교육만 이용하는 사람이 21.2%로 가장 많았는데( $P_1$  & A), 이들은 현재 공적 방과후 이용 없이 사교육만 이용하다가 공적 방과후 서비스 신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로 신규 수요로 추정 가능함.
- 공적 방과후 돌봄을 현재에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P_1$  & B)는 5.3%, 현재 사교육과 공적돌봄을 이용하는데, 앞으로도 공적돌봄을 지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P_1$  & A & B)는 19.6%로 총 24.9%는 이용지속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사교육이나 공적 돌봄을 현재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는 이들로서 공적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 $P_1$  & C)는 6.4%였고, 이 역시 공적 방과후 서비스 신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로 신규수요로 추정 가능함.
- 즉,  $P_1$  & A와  $P_1$  & C는 현재 공적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종료된 이후에는 이용의사가 있는 신규 수요로서 총 27.5%가량이 이에 해당함.

#### ○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의사가 없는 응답자 분석

- 코로나19 이후 공적돌봄 이용의사가 없음( $P_0$ )은 총 482명(47.5%)이었음.
- 현재 공적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P_0$  & A)은 34.5%에 해당함.
- 현재 공적 방과후 돌봄만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이용중단 의사가 있는 응답( $P_0$  & B)은 1.1%에 불과하였고, 현재 사교육과 공적 방과후 돌봄을 모두 이용하는데 공적 방과후 돌봄의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 $P_0$  & A & B)은 5.5%였음. 즉,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이후에는 중단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6%였음.
- 현재 사교육이나 공적 방과후 돌봄 중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공적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P_0$  & C)은 6.4%였음.
- 종합하면, 현재의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6%에 불과하여 이용 지속의사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 대구시 초등학교 아동 수 고려 공적돌봄 수요 추정

- 위의 분석결과에서 신규 공적돌봄 수요를 27.5%( $P_1$  & A와  $P_1$  & C)이며, 2020.4.1. 대구시 초등학교 인구 122,587명을 고려할 때, 약 33,711명의 신규 공적 돌봄 수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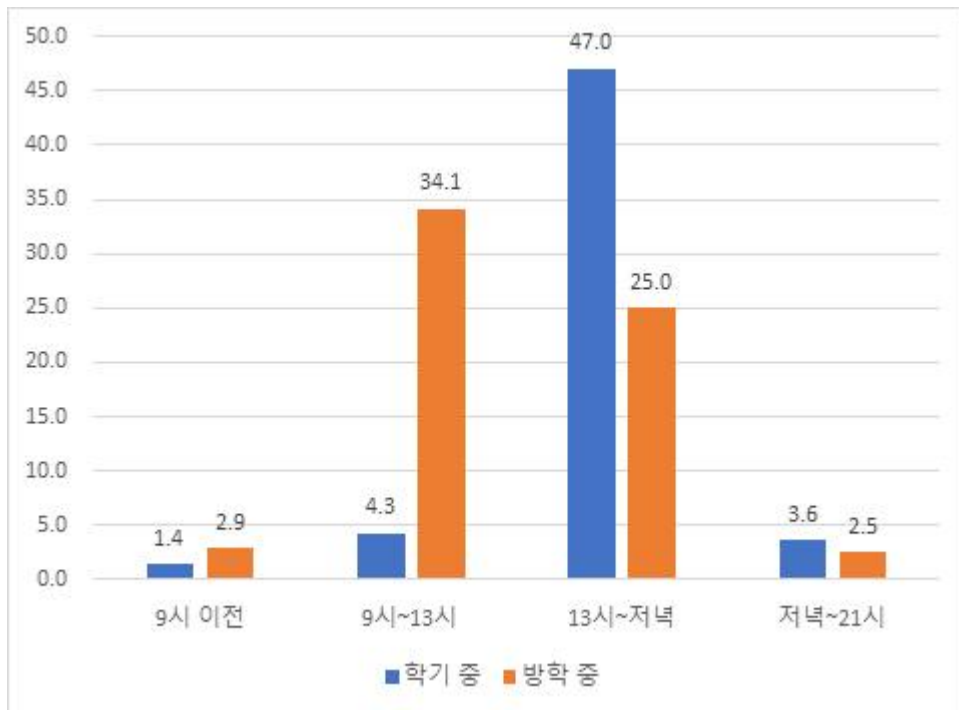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초등 저학년(1~3학년)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때, 2020.4.1.부 대구시 초등 저학년 인구 수 61,611명 중 27.5%에 해당하는 16,943명의 신규 수요가 우선적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즉, 대구시의 초등 저학년 공적 돌봄 공급은 우선적으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약 1만 7천 명을 규모로 확장해야 하며, 나아가 고학년까지 약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3.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시간

-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3-12와 같음.
- 학기 중에는 13시~저녁때가 47.0%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방학 중에는 9~13시가 34.1%로 가장 수요가 많았음.
- 특히, 학기 중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공백수준이 가장 높은 오후 4~7시 사이에 돌봄 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임.

(단위: %)



〈그림 3-12〉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희망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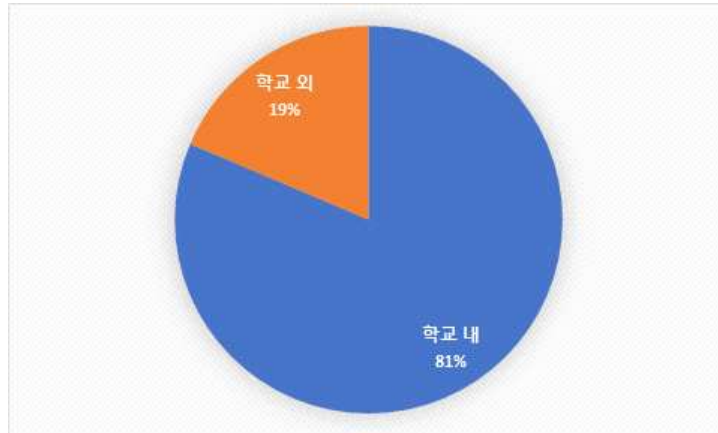
#### 4. 공적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

- 공적돌봄 서비스 선택사유 별 중요성 인식을 1~5점으로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3-13과 같음.
- 모든 항목들이 평균 3.5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응답자들은 ‘안전성’을 평균 4.78점으로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 시간이 나와 잘 맞는 것’, ‘급식 혹은 간식이 적절한 것’ 등을 꼽았음.
- 즉, 안전성과 전문성, 제공시간, 급식(혹은 간식) 등이 공적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 욕구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3〉 공적돌봄 서비스 선택사유 별 중요성 인식

- 공적돌봄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 4-14와 같음.
- 응답자의 81%는 학교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학교 밖에서 공적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였음.
- 즉, 공적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종합하면,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4〉 공적돌봄 제공장소 선호도

## 제5절 소결

- 돌봄 공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오전 3~7시였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됨.
-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식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공적 돌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되는 시간인 오후 2~3시 무렵부터 돌봄 제공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학원이나 학습지 등과 같은 사교육으로 돌봄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 신규 수요는 약 27.5%로 이는 2020.4.1.일자 대구시 초등학교 인구로 추정할 때, 약 3만 3천 명가량의 신규수요에 해당하고,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인구를 대상으로 공급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약 1만 7천 명의 공적 돌봄체계 수용가능한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적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오후 3~7시 사이에 집중적인 공적돌봄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공적돌봄에 대해 보호자가 주로 기대하는 것은 학교 내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었음이 확인됨.

# 제4장 대구시 방과후돌봄 서비스 관련 주 양육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 제1절 조사 방법 및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방법

- 대구시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2021.8~9월까지 2개월 간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함.
- 인터뷰 참여자 모집을 위해 이용자가 많은 맘 카페 중심으로 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자발적 참여자 중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개별 연락하여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는 질적 연구에 대한 훈련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자 2명이 수행하였음.
- 인터뷰 진행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 인터뷰 참여에 따른 혜택과 위험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터뷰 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획득하고 진행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되었음.
- 인터뷰 녹음의 개시와 종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며, 녹음된 인터뷰 파일은 즉각 전자본으로 변환되었으며, 변환된 전자본에 대해 연구책임자와 인터뷰 수행 연구진 2명이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오류를 검토하였음.
- 인터뷰 전자본을 검토 후 의미 단위로 코드를 도출하였으며, 각 코드 별로 반복적인 비교 및 대조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함(Braun & Clarke, 2006)
-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위하여 Atlas.ti 8.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음.

## 2.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음.
- 대구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 양육자 14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14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최소 29세에서 최대 42세로 평균 36세(표준편차 4.42)였음.
- 연구참여자의 학력은 고졸 1명(7.14%), 초대졸 2명(14.29%), 4년제 대학졸업이 11명(78.57%)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과 사무직이 각 2명(14.29%), 공무원이 2명(14.29%), 방문교사가 2명(14.29%), 보육교사 2명(14.29%), 학원강사, 자영업, 콜센터 직원, 간호조무사, 영양원 사회복지사, 주부가 각각 1명(7.14%)이었음.
-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3명(21.43%), 자녀가 2명인 경우 10명(71.43%), 3명인 경우가 1명(7.14%)로 연구참여자의 자녀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자녀를 여러명 둔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주된 인터뷰가 진행된 학년이 1학년인 경우가 7명(50%), 2학년인 경우와 3학년인 경우가 각각 3명(21.43%)으로 절반이 1학년 자녀의 돌봄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였음.
-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하여 6명(42.86%)이 '중하'로 답하였고, 5명(35.71%)이 '중'이라고 답하였으며, '하', '중상', '상'은 각각 1명(7.14%)이었음.
- 연구참여자의 거주지는 달서구 4명(28.57%), 수성구 3명(21.43%), 동구, 북구, 서구가 각각 2명(14.29%)이고, 달성군이 1명(7.14%)이었음.

<표 4-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이름 (가명)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자녀 수	초등 자녀 학년	주관적 생활 수준	지역	비고
1	A	31	여	대졸	공기업	1	2	중	달서구	
2	B	35	여	대졸	공무원	2	1	중	동구	
3	C	37	여	대졸	회사원	1	2	중하	수성구	
4	D	32	여	대졸	주부	2	2	중	북구	
5	E	41	여	대졸	학교 행정직	2	2	중하	달성군	계약직
6	F	40	여	대졸	학원강사	2	1	중상	달서구	휴직중
7	G	29	여	고졸	콜센터상담원	3	1	하	달서구	
8	H	40	여	대졸	자영업	2	3	중하	수성구	
9	I	30	여	대졸	보육교사	2	1	중	북구	



연번	이름 (가명)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자녀 수	초등 자녀 학년	주관적 생활 수준	지역	비고
10	J	34	여	초대졸	간호조무사	2	1	중하	달성구	
11	K	34	여	대졸	방문교사	2	1	중하	동구	
12	L	39	여	대졸	사회복지사	2	3	중하	서구	
13	M	42	여	대졸	방문교사	1	3	중	수성구	
14	N	40	여	초대졸	보육교사	2	1	상	서구	

## 제2절 주 양육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과 활용되었던 대처전략들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욕구가 미충족되는 공적 돌봄	대구시 공적돌봄에 대한 개선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방과후 돌봄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막막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함</li> <li>• 적절한 돌봄방법을 찾지 못해 혼자 아이가 방치됨</li> <li>• 긴급상황 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찾기 어려웠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방과후 돌봄 공백에 활용되었던 보호자의 대처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의 시간을 돈과 바꿔야 했음</li> <li>• 아이의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전생처럼 스케줄을 관리해야 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자녀 돌봄 공백의 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 가족을 동원해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실패함</li> <li>• 믿을 만한 태권도 관장님이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함</li> <li>•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아쉽지만 공적 돌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적돌봄을 제공받을 때 안정감을 경험함</li> <li>• 만족스럽지 않은 공적돌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체계적이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공적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4시 이후의 공백시간</li> <li>• 돌봄의 대상이 한정됨</li> <li>• 클락 한번에 아이의 1년이 바뀌는 진입장벽</li> <li>• 연계성이 부족한 공적 돌봄체계</li> <li>•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공적돌봄체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어쩔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낮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의 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간식</li> <li>• 접근하기 어려운 돌봄교사</li> <li>• 만족스럽지 못한 프로그램 내용</li> <li>• 공적 돌봄에 대한 편향된 사선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계층의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학습보다는 아이의 안전한 케어가 선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과 공간에서 유연한 돌봄교실</li> <li>•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으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성있고 책임성 있는 돌봄체계</li> <li>• 개별 시스템간 유기적 연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질 높은 서비스를 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의있는 간식</li> <li>•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li> <li>• 따뜻하고 전문적인 교사</li> </ul>

〈그림 4-1〉 주 양육자의 심층면접 분석 결과

### 1.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과 활용되었던 대처전략들

#### □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

##### ○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막막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함

-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고 있는 부모로서 돌봄의 공백은 큰 막막함과 서러움으로 다가옴.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고 일정 시간에 등하교를 하는 등 단체생활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을 둔 부모의 경우 그 과정이 더욱 불안하게 생각됨. (A)는 돌봄의 공백으로 엄마가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며 엄마로서의 나와 직장인으로서의 나

의 역할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황폐화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음. (E)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 (N)은 갑자기 입사결정이 되어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전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봄교실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음을 호소함.

-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백에 있어 당장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답답해하고 있음.

진짜... 멘붕이었고 너무 서러웠어요. 나 정말 이거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일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랄까 엄마로서의 나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냥 내 자신 사이에서 너무 제 스스로 황폐화되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A)

학기중에 한번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열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녀돌봄이라고 해서 한 학기에 하루정도 낼 수 있거든요. 그거 급하게 내고 연차도 쓰고 시댁에도 좀 보내고..그러고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갔죠. 그때 힘들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친정엄마는 일하러 가신다고 그러고..(E)

나는 갑자기 일을 해야 하고 애는 갑자기 갈 곳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봄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그때 마음이 좀 다쳤다고 할까.. 애는 이제 아이고 갈 곳이 없는데 나는 나가야 되고 막 이랬을 때 힘들었죠. 많이... 또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N)

#### ○ 적절한 돌봄 방법을 찾지 못해 혼자 아이가 방치됨

- 이러한 막막한 상황속에 적절한 돌봄 방법을 찾지 못해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음. (N)은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가 혼자서 집에 방치되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는 집에 오롯이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한다고 함.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미디어와 스마트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 엄마로서 많이 울었다고 함. (L)은 엄마가 토요일에 출근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토요일은 돌봄교실 운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서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시간을 떼우게 했었다고 함. (J)는 돌봄공백에 각종 사교육을 전전하다가 집에 와도 엄마 퇴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학기 중에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돌봄시간 종료 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아이가 혼자 집에 있거나 주말 출근의 경우 어른의 보호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런 현상은 방학 중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겨울방학 같은 경우도 아이가 집에서... 방과후가 있어요. 방과후가 들쭉날쭉이예요. 문제는.. 비는 시간이죠. 비는 시간은 아이 혼자 오롯이 소비를 해야해요. 도서관에 가면 된다고 하지만 도서관은 거의 방치수준이죠. 도시락싸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하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뽕뽕 떠버리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이런 날은 아이 혼자 집에 있었어요. 1학년 때 아니 혼자.. 오전 내내...오전 내내. 핸드폰도 사주고. 이 아이는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냥 할 수 없이 사줬어요. 전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그나마 게임이라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좀 많이 울었어요(N)

토요일에 출근하는 엄마거든요. 3학년, 1학년. 토요일에는 돌봄을 안 하잖아요. 학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오전에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OO 도서관, OOO 도서관 이런 식으로 구에서 하는 도서관. 거기 신청을 해서 도시락을 싸서 거기 도서관 테라스 있죠. 안에서 못 먹으니까. 1학년 3학년짜리를 도시락 싸서 테라스에서 먹게 아침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오후 12시 반에 퇴근하니까 그때 또 데리러 오는 거예요. (L)

그럼 방과 후 수업하고 나면 피아노 갔다가 미술가고 태권도 가고. 이렇게 해도 제가 오는 시간 못 맞추거든요. 시간이 1시간 비면 집에 혼자 올라가서 그냥 잠깐 TV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든지... (J)

#### ○ 긴급상황 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찾기 어려웠음

-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돌봄공백도 부모에게 막막하고 막연한 일이지만 갑자기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돌봄 방안을 찾지 못해 더 어려움이 가중됨을 관찰함. (N)은 갑작스러운 취업상황에 돌봄신청을 하였으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행정처리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어 서러웠던 경험을 이야기 함. (A)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학교가 폐쇄되고 돌봄도 폐쇄되어 2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대안이 없이 막막했던 경험이 있었음.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H)는 코로나로 오히려 어린이집 긴급돌봄에 투입되는 바람에 본인의 두 아이는 정작 맡길 곳이 아예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하고 작은 아이 정도는 데려갈 수 있었으나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아이는 차마 데려갈 수가 없어 엄마가 오전 일을 마칠 때 까지 두어 시간 아이를 지하주차장 차 안에 혼자 둘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함.
- 이렇듯,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적돌봄이 가장 먼저 문을 닫아 이용이 제한되고 이러

한 상황에서 부모가 믿고 맡길 어떤 시스템도 부재했음이 밝혀짐. 위기상황에서 작동하는 공적돌봄체계가 시급함.

제가 갑자기 기다리던 일자리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거요. 그래서 급히 돌봄신청을 하고 학교에 사정을 했는데도 받아 줄 수 가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이름만 넣어놓고 안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자리는 남고...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애들은 집에서 엄마가 돌볼 때. 그때 꼭 필요한 친구들은 좀 유동적으로 갈 수 있게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N)

제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딱 폐쇄가 되어 버리니까 저도 지금 회사에 거의 주임 수준이고...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뭐 대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예 돌봄 자체가 시행이 되지를 알아서 그때는, 그때는 저희 아이가 1학년 입학할 때였는데 4월까지 돌봄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오픈 자체를 안 하신 상태였어 가지고..(A)

저번에도 이제 애가 2학년 때 둘째는 6살이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러가야 하는데(보육교사로) 큰 아이는 학교가 문을 닫아서 보낼데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발 동동 구르다가 우짜노.. 작은 애만 데리고 회사로 올라가고 큰애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두 시간은 밑에 (차에) 놔두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H)

#### □ 방과후 돌봄 공백에 활용되었던 보호자의 대처 전략

##### ○ 엄마의 시간을 돈과 바꿔야 했음

- 직장인이자 엄마인 주된 돌봄자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이 소홀하고, 엄마로서 충실하려면 돈을 벌 수 없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함. 또한 연구참여자의 근로소득은 학원비와 치환되어 아이는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사교육비를 소비하고 엄마는 그만큼의 시간동안 일을 하여 사교육비를 마련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됨.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엄마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항상 가지고 있음.
- (K)는 돌봐야 하는 시간만큼 방과후에 학원 개수가 증가되므로 본인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토로함. (D)는 이러한 시간과 돈이 상쇄되는 상황의 반복 속에 다녔던 직장이 대기업이었고, 근로 조건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함.

그래서 저희 애는 방학 동안 미술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되는 거죠. 이제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14만 5000원이라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K)

저는 그 일찍 결혼을 한 편이거든요. 신랑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서울 본사에 있었고 신랑은 대구에서 일을 했어서 따지고보면 사내연애인데 결국에는 제가 신랑하고 결혼전에도 서울로 올라와라 올라올 수 있으면 발령을 내면 되지 않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는데 저같은 경우는 TO가 없어서 못 내려오는 상황인거예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도 가능하고..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포기하기는 싫고 부모님도 원치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 그래서 내려올 수 밖에 없는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도 너무 슬퍼하시고 겨우 원하는 회사를 보내냈더니... 저도 속상하고... 그죠. 정말 힘들었던거 같아요.(D)

○ 아이의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전쟁처럼 스케줄을 관리해야 했음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의 스케줄을 새로 짜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스케줄을 짤 때는 촘촘한 시간배치, 이동의 용이성, 안전, 추가적 돌봄가능여부(식사제공 등), 짜투리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적지않음. 아이가 공적돌봄을 이용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 부모의 퇴근까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어떻게 돌봄을 제공할지를 학부모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스케줄 짜기의 부담을 전쟁으로 표현할 정도임.
- (N)은 방과후부터 돌봄,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엄마가 직접 스케줄을 짜는데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는데 일단 매일 아이의 하교시간이 다르고, 따라서 아이의 스케줄이 요일별로 다르고 보내는 학원도 매일 달라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함. (K)는 특히 방학 중 돌봄공백이 많아 시간을 채워나가는 어려움이 가중됨을 이야기함. (L)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기 보다 사교육을 이용하였는데 과목당 교육시간이 짧아 각 과목간 연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방과 후는 제가 그래서 이제 짤 때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게 시간이 틀러버리면 아이가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아이가 시간이 뜨지 않게끔 이어서 연달아서 다다다 넣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한자 하고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하고 한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그 두 가지가 시간이 월수금이었고 앞뒤... 뒤였어요 수업이. 그래서 제가 월수금만 이제 등원 시켜주고 이제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9시에 가서 10시 11시에서 12시까지 되잖아요. 9시 10시에, 10시에서 11시잖아요. 그러면 또 관장님이 또 데리러 오셔요. 또...하고 시간도 되게 들쭉날쭉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월수금은 한 시에 오고 이런 식이어서 가지고 되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돌봄은 아니더라도 학원 보내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학원 시간이랑 방과 후 시간이랑 너무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들도 헛갈리고.(N)

방학 중에 2시까지면... 이거는 보통 정말 일하는 엄마들은 2시까지 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1학기 마치고 첫 방학이잖아요. 진짜 처음엔 어떻게 해야되지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방학이 1달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2시 반에 마치니까 이제 합기도는 4시에 가야 되고 중간에는 뭘 하나 넣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거나. (K)

그렇게 밥을 먹고 12시 반에 이제 학원차가 오면 학원을 가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학원에서 점심 급식을 했었는데 요즘엔 점심 급식이 안 돼서 그래서 12시 반에 가면 이제 뭐 그 영어랑 피아노를 하는데 해 봤자 40분 40분 하는데 애는 4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L)

#### □ 다양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자녀돌봄 공백의 현실

##### ○ 온 가족을 동원해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실패함

-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는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하여 형제자매, 친인척, 사설 돌봄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대처 수단을 탐색하였으나 결국 돌봄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됨. 조부모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일정기간에 한정되어 결국 한계에 직면하게 됨.
- (A)의 경우 시부모님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하루라도 쉬면 치매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손자녀의 돌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음. (L)의 경우 자녀가 어릴 때는 아이 양육을 맡아 주셨으나, 손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그럼에도 급한 경우에는 봐주시기도 하지만 아이가 텔레비전만 하루종일 보거나 지루해 하여 할머니댁에 가는 것을 점차 꺼려함. (C) 또한 친정아버지가 근처에 계셔서 종종 봐줄수는 있지만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의 질적인 면이 걱정되어 맡기기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함. (N)은 돌봄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취업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 가족 중 특히 조부모에게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의뢰를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조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특성상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경험하였으나 그에 적합한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미비함으로 결국 노후에도 본인의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됨.

어머니가 하루라도 일을 쉬시게 되면 어머니께서 케어하시는 그 할머니들께서 곤란한 상황이 좀 생기다 보니까 주로 치매 할머니 담당을 하셔서 하루라도 시간을 빼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A)

시아머님이 근처에 있으면서 키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도 애가 하루종일 있으면 얼마만큼 심심하잖아요. 어디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도 방학 때도 계속 보냈죠.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L)

돌봄을 보내도 되는데 제가 직장도 가야되고 친정 아버지가 집이 멀어서 해주기가 어려워.. 그것도 있는데 간식 같은 것도 해서 보내야되고 일찍 마치고 그러니.. 시간도 단축된거 같고 이러면. 안그래도 이제 시간이 그런데 짧아지면 어차피 못가니까 제가 일을 해서...(C)

그래도 4시간 30분 근무라서 괜찮은데 정규직은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저같은 경우는 퇴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중요한건 방학이죠.(N)

○ 믿을 만한 태권도 관장님이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함

- 온 가족을 동원하였음에도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사설학원이 대신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태권도 및 피아노 등 주로 예체능을 담당하는 학원에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의 이동을 책임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으며 수업 앞뒤 시간에 이동시간으로 인한 실제적 돌봄시간이 타 학원보다 길기 때문에 주로 이용함. 방학 때에는 학원에서 식사제공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함.
- (N)의 경우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지도 내용, 아이의 선호도 보다는 아이의 케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색하여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함. 특히 '태권도 관장님이 돌봄 선생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방학 때에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밥도 먹고 태권도장에서 놀이도 맡아 주고 수업도 하는 등 돌봄을 대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학원 수업이 없는 요일에는 아이 혼자 집에서 보내게 되어 딱딱했던 부모의 마음을 토로하였음. (K)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합기도 학원을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가는 학원으로 스케줄을 짰다고 이야기함. 합기도 관장님은 항상 아이들의 차량도우미를 채용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쉬는 시간 동안도 안전한 돌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다고 함. 합기도가 끝나고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여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다가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집까지 차량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돌봄공백을 합기도 학원에 의지하고 있었음. (I)의 경우 방학 중에는 점심시간 직전인 12시까지만 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하였음. 출근을 하면서 도시



락을 싸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다가와 점심을 제공해주는 학원을 수소문 하였고 인근의 피아노 학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방학 기간인 2달 만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였다고 함. 점심값은 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피아노 학원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수업을 듣고 이후에 학원을 두군데 더 다니다가 집에 오는 방식으로 아이의 돌봄공백을 피아노 학원에서 채우고 있었음.

그렇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태권도 관장님이 돌봄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이 들만큼 이렇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태권도에서도 점심을 지급해 줄 정도로.. 그래서 아이가 졸든 싫든 태권도를 보내야 하는거죠. (중략) 진짜 관장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좀 열악하더라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11시부터 이제 우리 아이는 태권도장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그것도 점심인데 뭐 맛있거나 그렇지 않겠죠. 도장에서 점심을 줬어요. 또 금액을 지불을 하면 이제 점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아이들이 있다 보면 맞벌이 엄마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거기서 놀다가 집에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이런 날은 아이 혼자 집에 있었어요.(N)

6시까지 마지막 학원이 합기도거든요. 합기도에서 5시 반에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나는데 이제 부탁을 드렸죠. 이런 상황 때문에 애를 봐줄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합기도 관장님이 돌봄 선생님 한분을 두셔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6시까지 맡아 주세요. 애를. (K)

방학중에는 아침 9시에 가서 12시까지 돌봄하고 짐 인제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 오면 피아노 학원가서 점심을 먹어요. 다행히 학원에서 점심을 제공해 준다고 그러가지고...그 지금 학원가서 밥먹고 출근기 학원 갔다가 다시 학원 또 하나 가고..이렇게 학원 세군데 다니죠...점심 때문에.. (I)

#### ○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림

- 온 가족을 동원해서도, 믿을만한 돌봄제공자를 찾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의 돌봄을 전담하는 선택을 하게 됨. 연구참여자의 약 79%가 4년제 대졸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손실로 볼 수 있겠음. 자발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기 보다 자녀의 돌봄을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한계에 이르러 오랜 커리어를 놓는 것을 아쉬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론이기에 상실감과 공허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
- (A)의 경우 어렵게 공부하여 공기업에 입사하였으나 당장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직장에서의 위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합법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고려하다가 그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아 퇴사까지도 생각한다고 이야기 함. (D)의 경우 아이 학교가 소규모인 관계로 인근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오후에 옆 학교로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가 돌봄을 받기 위해 인근 학교로 매일 의무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황폐해진 마음과 피곤해진 몸으로 오랜 고민 끝에 퇴사하게 되었음. (J)의 경우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실시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여 학교 등교 거부까지 있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도움을 줄 돌봄제공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음.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은 제가 차라리, 차라리 애를 하나 더 가져서 육아 휴직을 해 버릴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돌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회사에도 주임 수준이고 애가 저기 방치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또 그냥 진짜 입사하기 정말... 들어가기 정말 힘든 회사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그만둬 버릴까 이 생각까지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A)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저는 친정이 되게 멀거든요. 유치원에서는 시간이 4시 15분이면 유치원 돌아오고, 게다가 통합돌봄을 하려면 중간에 전원을 해야하고. 그 잠깐 사이에 또 애를 여기를 보내고 저기를 보내고 할 수가 없어서 또 일을 할게 안되더라구요. 둘째 계획이 없어 일을 했는데 둘째를 갖게 되고 막달까지 일을 하다가 너무 힘에 부쳐서 그만 두면서...그게 진짜 엄마가 일을 한다는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거 같아요.(D)

매주 전화해서 우리 애가 싫다 하는데 울고 왔는데 그 수업 안 들으면 안 되냐.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너무 싫어하니까 학교까지 안 가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하니까 제 친동생까지 불렀어요. 진짜 마치고 학교 마치고 우리 애 좀 봐 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 동생이 와서 애를 찾아서 봐 줬고. 제가 올 때까지 봤고 우는 상황까지 봤었고 한 주 쉬고 한 주 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고 또 가니까 또 화내고 또 뭐라 해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동생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동생도 일이 있으니까 안 돼서 저도 급하게 퇴사를 하고 이제 그냥. (J)

## 2.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욕구가 미충족되는 공적 돌봄

□ 아쉽지만 공적 돌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됨

○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적돌봄을 제공받을 때 안정감을 경험함

- 다른 돌봄체계보다는 학교에서의 공적돌봄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돌봄서비스 중 가장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학교 돌봄으로 나타남. 이는 학교라는 공공성과 교육과 돌봄이 학교라는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안정성 때문으로 보임. (C)는 공적돌봄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으며 공적돌봄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가진 학교에서 제공하여 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함.

또한 아이의 사회성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돌봄 시간 동안 자유시간 운영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내에서 어울리며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어 아이의 만족도 높음을 표현함. (F)는 저학년 학부모로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K)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엄마가 일을 하며 돌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친구들과 관계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제공 공적돌봄의 장점을 이야기함.

- 이는 3장의 양적조사 결과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47.6%로 매우 높았고, 학교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에의 안전성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함.

저희 워킹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 안들이고 안전하게 놔 두는거니까 그리고 학원 선생님보다 좀 더 책임감이 있는거 같고 확실히 그거는 다르구요. 내부에서 하는 거는 다르지요.(C)

아이는 방과후를 너무 좋아해요. 집에오면 친구도 못 만나니까...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친한 친구도 생겼고, 학교 가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가고 있어요.(C)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학년들이 엄마가 몇 개월 맞춰도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F)

그냥 고맙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좀 어른들은 그러거든요. 엄마 요즘엔 진짜 그 일하기 좋아졌다고. 이렇게 애 맡기고 애가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저도 뭐 애가 공부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보육의 개념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애가 또 별탈 없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K)

#### ○ 만족스럽지 않은 공적돌봄

- 반면에, 여러 가지 돌봄방법의 선택지 중에 되도록 보내고 싶지 않은 돌봄체계로서 공적돌봄을 꼽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음. (N)은 엄마들 입장에서 가급적 보내고 싶지 않으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다고 응답함.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욕구가 미충족 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함. (K)는 학교 돌봄교실이 아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싶는데 차량 운행이 안되고 등하원을 위한 돌보미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비효율적이라 어쩔 수 없이 학교 공적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함. (F)는 사교육을 시키며 여기저기를 학원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돌봄교실이 만족

스럽지는 않지만 이용의 편의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함.

그니까 이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예요. 정말 가급적은 정말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어쨌든 내가 능력이 돼서 하루라도 일찍 오는 날은 일찍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있는 거에 대한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그럼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엄마가 일을 하니 어쩔 수 없는거고...(N)

지역에 돌봄 아동 센터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임시 운영을 한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알아봤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센터조차도 이게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인가 싶은 게 차량 운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는 학교에서 그 센터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걸어갈 수는 없고 그 동네는 모르겠지만 가까워도 차타고 가야 되는 거라면 분명히 차량 운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태워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태워 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량 등하원 돌봄비를 또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그냥 별 소용없는 정책이 아닌가. 차라리 그냥 학교 내에 방학 동안 돌봄반을 시간을 늘려 주지. 이걸 왜 별도로 운영을 하는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K)

보통 대부분 엄마들이 돌봄을 보내도 처음 마인드는 그래. 그래도 지금 이제 1학년이니. 학원을 보내는 거보다 뺑뺑이 돌리는 거보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제일 안전해라는 생각에 보내는데.(F)

#### □ 체계적이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공적돌봄

##### ○ 클릭 한번에 아이의 1년이 바뀌는 진입장벽

- 돌봄이용 신청 과정에서도 진입장벽이 확인되었는데, 실제 수요에 비하여 돌봄대상 인원이 적어서 돌봄을 원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심지어 맞벌이의 경우에도 돌봄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음. 연구참여자들은 돌봄 신청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학기 초에 문자로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엄마의 빠른 손에 아이의 1년이 결정된다는 마음으로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탈락 시 좌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방식에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음.
- (D) 역시 실제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음. 신청 과정에서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돌봄교실이용이 운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N)은 돌봄 신청이 학기 초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중도 신청이 불가하여 갑작스럽게 취업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받을 동동 굴렀던 경험을 이야기함. (L)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고 함. (N)은 돌봄교실에 출석하지 않아도 명단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용이 필요한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유연성 없는 운영을 지적함. 이러한 경험을 한 학생이 다수였음을 확인하여 함께 올렸던 기억이 있다고 함.

가고 싶어도 못가요. 주변만 봐도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대구시가 과밀이라 저학년만 해도 500명이거든요. 500명이라고 해도 직장맘 퍼센트 대충만 따져도 많은 수가 보내기를 원할텐데 너무 조금 뽑아서.. 그래서 3월달 정도가 되면 난리가 나요.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저희는 선착순..문자로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 시계 맞춰놓고, 예약을 걸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딱 그 시간에 들어가야 해서 시간 맞춰놓고 준비해놓고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거 공평하다 싶지 않은게 그냥 빠른 사람이 운좋아서 그냥 다니고 근데 그게 돌봄 한번 되면 다니는 기간이 1년은 될텐데...티오가 애들이 그만뒤야 생기는거야...1년의 인생을 엄마의 빠른 손으로 거는게...(D)

저희는 초등3, 초등1 남자아이가 있어요. 1학년생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돌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 3학년이 돌봄을 하면서 마음을 다친 경우도 있고 속상했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학기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같은 경우 보육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10년 만에 취직을 한거죠. 저는 되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돌봄을 신청을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학기 중에 받는 경우는 거의 10프로 미만인거 같아요. 자리를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잡아 놓는거 때문에 저희 애는 못 가는 거였어요 돌봄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아이가 열명이라면은 3명 4명밖에 출석을 안하는데도 저희 아이는 못 갔어요. 굉장히. 그게 말하자면 유연성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N)

돌봄을 한 번 하다가 엄마가 자격이 안 돼서 탈락을 했는데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개는 선생님이 혼자 있는 것도 알면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엄마가 다시 일을 해도 못 들어간대요. (L)

그래서 왜 중간에 못 들어가게 되냐고 막 주변에 이제 먼저 보낸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야. 거기 가려고 줄 섰는데 니 같으면 그 중간에 넣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안 빠진대요. 애를 안보내도 이름은 올려놔야 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거죠.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또 하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름을 올려놓더라도 만약에 결석생이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급한 아이들은 좀 받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으로 해주지 않으셨고 너무 그 트랙만 맞춰주시지 맞춘 행정이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두 명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래서 같이 막 전화 통화하면서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N)

#### ○ 돌봄의 대상이 한정됨

- 돌봄 대상이 저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학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중·고학년의 경우 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끼리 지내거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돌봄 공백시간에 아이들끼리 도로 주

변을 배회하거나 하는 등 안전의 위험이 있고 비행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A)는 3학년 이상도 케어가 필요한 나이로 돌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함. (N)은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3, 4학년의 비행이 시작되기도 한다며 친구들 끼리 몰려다니며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3, 4학년은 부모와 별도로 친구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많은 짜투리 시간과 이동의 위험성이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어른의 안전한 지도가 필요함.

사실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돌봄을 길게 이용하기보다는 주변처럼 이렇게 학원 위주로 가는 편이니까 시간 연장보다는 초등학교 3학년도 사실은 케어가 많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아서 연령을 조금 한 학년이라도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돌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어떻게 보면 3학년 아이들도 애기, 애기 같은데 개들이 너무 혼자 방치돼 있는 걸 보니까 그 연령을 한 학년이라도 올려 줬으면... (A)

그리고 3학년 4학년들이 좀 보면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거든요. 1학년 2학년은 몰라요. 야기예요 야기.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세상에 발을 살짝 걸쳤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3학년 4학년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자주 이렇게 학교에서도 안 받아준다 학원으로 간다. 학원은 친구들이랑 같이 또 우르르 몰려가다가 같이 뭐 사먹고 편의점 가. 이렇게 길에 또 돌아다니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방치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방과 후 또 중간에 시간이 비어버리니까. 애들이 놀이터 모래장에서 만나서 저끼리 또 시간을 떼우고 있는 거죠. 도서관에서 시간 떼우다가. 도서관에서 시간 떼우다가 놀이터에서 시간 떼우다가 그런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거죠. (N)

#### ○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4시 이후의 공백시간

- 정해진 돌봄시간보다 일찍 돌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사교육을 추가하거나 아이 혼자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F)는 본인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3, 4시 안에 여러 학원을 보내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함. 본인의 의사가 아닌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하교를 시켜야 함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음. (E)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5시까지인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는데 이를 눈치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치 않아도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려야 하는 것의 불편함을 제기함.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육비 발생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표현함. (D)는 분위기도 눈치싸움도 아닌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돌봄종료시간이 변경된다고 함. 특히 방학때에는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도 축소되어 더 불편이 가중되었음. (K)

의 경우도 방학 중 돌봄시간의 단축으로 일찍 데려와야 함에 대한 불만을 표했는데 부모의 근무시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의 돌봄종료 시간의 차이를 결국 학부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음. (A)는 전학을 오기전과 후의 돌봄 시간 뿐 아니라 분위기도 크게 다르다고 하여 학교마다 돌봄시간의 운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앞서 양적조사 결과에서도 돌봄 공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3시~7시로 나타났으며 질적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공통적으로 돌봄교실의 종료시간이 3-4시 정도로 종료의 이유가 암묵적으로 형성된 분위기상, 학부모간 눈치싸움, 돌봄교사 근무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방학에는 돌봄시간의 추가적 단축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공백시간을 떼우기 위한 안전상의 문제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서 돌봄시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니까 직장은 6시까지인데 대부분 3, 4시 안에 애들을 빼서 학원을 돌려야죠.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애도 힘든데, 애도 힘든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더 그런 거... 애들이 3-4시면 다 빠져나가고 다들 이제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가고 나면 남아 있는 애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다 데리고 가니까...(F)

저희는 5시까지 하는데 학생들이 가는 시간이 근데 보면은 다 같이 학부모님들이 눈치싸움 하는건지.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직장 다니는 엄마가 아닌 이상. 애들을 학원으로도 보내는거예요. 근데 돈도 돈이고 학원비도 너무 부담이죠.. (E)

그게 학교마다 다른거 같은데 돌봄 전담자 선생님의 계약제 근무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거죠. 원래는 학원을 하나만 다녔는데 1학년 겨울방학에 제가 또 시간이 안맞아서 방학때 돌봄을 갔는데 원래가던 시간에 학원을 가려니까 방학이라서 돌봄전담자 선생님이 일찍 오셔서 일찍 가시는거예요. 한번씩 이런 갭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학원을 하나 더 보내게 되었었어요.(D)

돌봄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방학 동안에 2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도 불만이었거든요. 일하는 엄마들이 방학이라고 일찍 마쳐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마치는데 2시 반까지 하면 나머지 시간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돌봄이라도 보내야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왕이면 그냥 평소처럼 4시까지 해 주면 어떨까. 1시간 반밖에 차이가 안 되잖아요. 5시까지는 오바라도 4시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4시에서 2시 반으로 줄여 버리니까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K)

다들 이제 학원을 다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내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전학을 온 상황인데 원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다섯 시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그때까지는 맡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4시쯤 퇴근을 하신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4시까지 채우기엔 죄송스럽기도 하고... (A)

○ 연계성이 부족한 공적 돌봄체계

- 연구참여자들은 공적 돌봄체계에 있어 각 체계간 연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는데, 연계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하위개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돌봄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짜투리 시간의 문제임. (N)은 학교를 마치고 돌봄교실로 가는 시간이나 방과후 종료 후 돌봄교실로 가는 시간, 돌봄교실 종료 후 학원으로의 이동에 짜투리 시간이 발생하며 짜투리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내 또는 학교 주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하였음. 짜투리시간에 아이들은 주로 도서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관에 돌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음. (E) 역시 돌봄공백시간 동안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제안하였음. 돌봄체계 내의 짜투리 시간은 학교내 체계간 연계성의 부족과 직결되는 문제로 방과 후와 돌봄교실 또는 각 학급과 돌봄교실, 돌봄교실과 사교육간 중첩되는 영역에서의 서로의 책임회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이에 각 체계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 방안이 필요함.

돌봄이 좀 그렇지가 않은가 보더라구요. 좀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난 여기 소속이다.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되게 짜투리 시간들이 나오고. 그 짜투리 시간이 거 30분이든 뭐 태권도 선생님 오기 전에 30분이든 얼마든. 그 짜투리 시간에 애들이 어디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케어를 받고 있는지 이런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엄마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도서관 선생님 사서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항상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도서관이 말이 도서관이지. 도때기 시장인 그런 부분이 이제 3학년부터는 1학년 2학년은 아기니까 봐준다 그렇지만 3, 4, 5, 6학년들은 너희가 그나마 조금 컸으니까 너희 알아서 좀 해봐라. 약간 이런 게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죠.(N)

4학년만되도 도서관에 있다가 가라...하겠지만 어린애들은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라 도서관도 닫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방과후도 수업을... 그러면 한시간 정도 방과후 수업을 들으면 30분이 비잖아요. 이거를 돌봄을 보내면 민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괜히 돌봄을 보내는건가. 그래도 저학년이 30분을 어디 보낼 수 없는데 로비에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인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아도 그런 애들에 대해서 짜투리 시간이나 이럴 때 케어해주실 수 있는 분이나 챙겨주시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거는 사실 파트타임으로 써도 되잖아요. 학교 수업 끝나고 방과후하고 아니면 봉사인력을 활용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학부모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도 약간 돌봄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E)



- 둘째, 돌봄체계에서의 이동의 불안함임. (N)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교실 간 이동이 잦으며 건물 간 이동도 하기 때문에 이동의 필요성도 모른채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뭔지 모를 어수선했'이 느껴진다고 표현하였음. (F)도 역시 아이 동선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소재의 부재로 인한 혼란에 대해 이야기 하였음. (N)은 이동에의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돌봄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교실에 남겨지는 아이들에 대해 돌봄교사가 학교 밖까지 책임질 경우에 안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한 케어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반면, 같은 상황에서 (I)는 안에만 책임질 경우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책임질 인력의 부족을 이야기 함.
- 학부모들은 각 돌봄체계간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의 학교내 동선의 파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학년의 경우 교실에서 방과후 또는 돌봄교실로의 이동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교내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이에 대해 돌봄교실에서나 방과후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그 사이에 아이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이 방 가고 갔다 저 교실 갔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으면...근데 학교도 작은 학교 바로 옆에 교실 이게 아니라 건물 넘어가거나 계단을 많이 내려가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도 막 길을 잃고 학교 안에서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차라리 오히려 저희가 학교 다닐 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진짜 이렇게 이게 뭔가 뭔지 모르는 어수선했이 너무 느껴져요.(N)

이렇게 관리가. 물론 학교에서는 나름 잘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선생님도 엄청 노력 많이 하세요. 줄 세워서 데리고 가시고 1학년들 막 알림장 앞에 이 아이 동선을 적어달래 해서 짝 적었는 걸 항상 알림장 앞에 석 달 녀 달을 붙여 놔어요. 보고 찾아 가라고. 그런데도 학교에서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헛갈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거 헛갈리시면 또 안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실에서 돌봄 교실까지는 가까운 거리라서 되는데 방과후를 듣도록 했더니 방과 후는 건물이 뒷동인 건물도 있고 나뉘지다 보니까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동에서 돌봄 교실로 오는 길을 제일 지금 힘들어 하는 거. 아 엄마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엄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하고 전화도 오고, 그거를 그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엄마들의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좀. 교실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뭔가 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F)

그 보니까 아이들이 1, 2학년이다보니까 학원 갈 때 선생님들이 교문앞까지 데려다주는데 그때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쩌냐는거죠. 철나의 순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아이를 정문에 데리고 가서 바로 인수인계가 되면 관찮은데 만약에 학원차가 늦거나 하면 맥락없이 기다려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빈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N)

돌봄 교실은 하교 시간이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하원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른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등교할 때는 횡단보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등교는 되게 안전한데 하교할 때는 안 계시고. 돌봄 교사는 이 아이가 교실 문밖에 나가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하지 않아요. 무조건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만 책임진다고 들었거든요. 이 아이가 교실 문밖을 나가서 넘어졌거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3시 4시 되어 버리면 집에 어른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도움을 청할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교실을 가도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앞에서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돌봄이 끝나는 시간까지라도 앞에서 보호해 주고 관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I)

- 셋째, 방과후 체계와 돌봄체계간 연계부족, 돌봄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의 부족 등을 포함한 돌봄체계의 연계성 부족임.
- (N)은 공적돌봄 체계안에서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느끼기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함.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후와 돌봄간 책임인력을 정확히 배치하여 연계상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당초 돌봄교실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였음. 돌봄교실을 둘러싼 명확한 책임 소재가 부재하여 아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학교 내에서도 돌봄을 둘러싼 역할이 정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I)가 이야기 하면서 돌봄교사와 연락이나 소통을 하기에 쉽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함. (L)은 돌봄교사가 휴가 중에는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돌봄교사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공적돌봄 체계안의 연계와 소통의 부족은 돌봄서비스의 질적인 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각 체계간 책임성의 확보 및 촘촘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필요함.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하실 일들이 많은데. 그 작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담임선생님의 역할이라기보다 돌봄이나. 이 중간에 뭔가. 돌봄과 담임 선생님과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꾸 하시는 느낌. 이 시스템을 조금만 바꿨더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배율을 조금만 더 잘한다든지 돌봄이면 돌봄 아이들을 싹 다 맡으시고. 방과 후면은 방과 후에 선생님이 한 분이서 관리를 싹 다 하신다던가..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오히려 좀 더 편리하실 텐데..(N)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과 후에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을 목표가 뭐였는지. 이거 얻고자

했던 게 뭐였는지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무슨 의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지 처음에 그 목적 목표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있는 상황이. 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보내고 방과 후는 방과 후 대로 해야 되고...제가 봐서는 너무 너무 어수선해서 우리 아이조차도 나조차도 헛갈려.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다가 아이가 붕 떠버리면은 서로 나는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이가 학교 내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기고.(N)

학교마다 다르고 아니면 교장 재량. 담임 선생님의 재량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해결적인 뭔가 디테일한 업무적인 지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돌봄 관련한 걸 학교 측에 전화하니까 학교 측은 다 돌봄 선생님한테로 전화를 돌려 주시더라고요. 학교 측에는 전혀 돌봄 교실에 대해선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돌봄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12시 이후에 전화 주세요. 일하다가 12시쯤 이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일 바쁜 시간이거든요. 이제 전화 시간을 3시, 4시쯤에 전화하면 그때 전화가 되거나 교실 5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5시 이후에 전화하면 학교 다 끝나고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일찍 전화하면 돌봄 교사들 전화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 되긴 하더라고요. (I)

행정실에 그런 분야 그런 분들이 출근하셔야 되니까 아예 그냥 방과후 방학 할 때 아예 그냥 올 스톱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직장인들 휴가 가면 이렇게 왜 옆에서 인계인수하듯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인수가 잘 안 되는지. 진보적이어야 되는 학교 단체가 이렇게...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L)

#### ○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공적돌봄체계

-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 공적돌봄체계가 미비했으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도 공적돌봄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음. (A)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근은 해야하는데 학교와 공적돌봄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1-2개월 정도 친인척에게 맡겨지면서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음을 이야기함. 긴급상황에서의 돌봄체계 미작동의 문제는 비단 대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2020년 초 대구경북지역에 심각한 코로나 유행상황에서는 돌봄체계의 미작동이 실제적으로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N)은 대구시의 코로나19 돌봄체계에서의 대응이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일정부분의 긴급돌봄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음. 그러나 실제 돌봄 수요에 비해 제한적인 긴급돌봄 대상이 이취웠음을 이야기함. (F)는 돌봄교실에서 코로나로 인한 원격교육 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임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며 몇몇 아이들을 교실내에서 원격수업을 함께 진행하였음. 이를 두고 다른 학부모들이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과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변의 시선으로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음.

(작년 초에 왜 대구 경북 지역에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때는 외갓집에 가 있었어요. 애가 그냥 아예. 여기 아예 돌봄 자체가 시행이 되지를 않아서 그때는, 그때는 저희 아이가 1학년 입학할 때였는데 4월까지 돌봄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오픈 자체를 안 하신 상태여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두어 달 정도 생이별하고 살았어요. 저희가 저희 친정 동네에 저희 이모도 계시고, 저희 외갓집도 있고, 저희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 출근하실 때는 저희 외갓집 갔다가, 이모 집 갔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A)

대구가 나름대로 관리를 굉장히 다른 곳보다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게 이제 긴급 돌봄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과 후면 다른 학교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좀 인구가. 인원이 작은 편인데. 인원이 많은 과밀 지역 학생들은 이제 돌봄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의 가정 하에 그 교실에서 이제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돌봄의 수요가 넘쳤고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그 긴급 돌봄이 그런 거였어요(N)

그 아이들이 당연히 돌봄에서 돌봐야 되는데 건 그렇잖아요. 돌봄에서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돌봄에서 안 하는 거냐 막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답답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괜히 보내시는 분들도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분들은 무슨 특혜냐 이런 소리 듣고 이러는 것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F)

## □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낮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의 질

### ○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간식

- (F)는 돌봄참여자가 전체 학생에 비해 소수이고 돌봄교사가 직접 간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상하지 않는 간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정부분 간식비를 지출함에도 간식의 내용이 부실함을 이야기 함. (B)는 아이가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대체품이 없고 알려지나 소화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는 일괄적인 처리로 먹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함. (F)는 간식의 양도 부족하여 아이들이 돌봄 후 돌아오면 너무 배고파 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였고, (D)는 방학 중 학부모에게 도시락을 싸도록 하고 있어서 직장다니면서 아이의 도시락 준비에 엄마의 일이 가중되었음을 보고함. (H)는 돌봄교실 이용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번거로움 때문에 돌봄교실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함.

- 또한,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간식이 복지재단이나 기부처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출처에 대한 불신과 음식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일정 금액안에서 공산품이나 상온 해동이 가능한 냉동식품 위주로 제공되는 간

식에 대해 형식적이며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돌봄에서 간식을 주거든요. 그런데 간식이 물론 선생님들이 예산 안에서 구입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럼 뭐 냉동식품 대충 막 이런 거 까서 데피는 그런 애들..좀 건강이 안 좋은 건데 그런거 주기도 하고 간식에 대한 불만이..(F)

간식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간식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저희 아이는 우유는 먹지만 마시는 음료수는 거의 안 먹고 애가 컸어요. 저는 음료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당분이 있기 때문에. (중략) 어느 날 물어보니까 제가 안 먹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두 입만 마셔만 보고 시도해 봤다는 거죠. 시도는 해 봤지만 먹지는 않고 다 버리는 거고 간식 같은 것도 나오면 빵 같은 것도 다 못 먹어서... (B)

애들이 학교 다녀오면 너무 배고파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배고파 하는데 간식을 혹시나 다른 걸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양을 더 주실 수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있으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어떤 데는 재단에서 그럼 복지재단 이런 데서 오는 걸 준다고 막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F)

돌봄 보내는 엄마들은 애네들이 방학동안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학동안에는... 엄마들이 일하면서 아침에 도시락을 싸라고 그러면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이러잖아요. 할 일 다 해놓고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싸서 결국에는 엄마 일을 가중시키는...먹는거는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안되서. (D)

급식이 안 나오니까 밥 제가 1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서 보냈어요. 사실 워킹맘들이 아침에 되게 바쁘잖아요. 나도 준비하고 애 보내려면. 점심 제공이 안 되니까 돌봄 보내는 아이들은 도시락 싸서 보내야 해요. 참 아침마다 밥싸는 게 이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반찬 싸 줄 수도 없고. 이것저것 바쁜 와중에 싸 줬는데 잘 먹는 아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는 잘 먹어서 싸 줬는데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간식 잘 안 먹지 뭐 잘 안 먹지 학원 끝나고 4시까지 올 때까지 먹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보내고 2학년 때부터는 도시락을 싸서 안 보내요. 밥 때문에 제가 돌봄교실을 이용 안 했어요. (H)

#### ○ 접근하기 어려운 돌봄교사

- 돌봄교사의 업무가 아동의 돌봄이라는 고유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부수적인 행정업무나 그 자리에서 시간 때우기식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가장 오랜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사이기 때문에 형식적 돌봄이라도 킴플레인을 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음. (M)

은 타 시도에서 전학을 왔는데 이전 학교의 돌봄에서는 교사가 학습지도 봐주고 세세하게 아이들을 케어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각 지자체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 하였음. (J)는 돌봄교사의 역량부족으로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돌봄교실 이용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또한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불편을 겪은 경험을 이야기함.

- 돌봄교사와의 소통부족, 일방적 프로그램 등 질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오랜 시간 맡겨야하는 부모로서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돌봄교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교사 간 편차가 심하며 학부모와 교사간 원활한 소통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멀게 느껴지며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

웬지 뭔가 우리가 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애한테 해가 갈까 봐. 그걸 제가 이번에 어떡하다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해선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나 미움 들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오래 있으시잖아요, 지금. 오후 시간을. 그 선생님과 오래 있어야 되는데 괜히 좀 밉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B)

동탄 시스템은 애 공부들도 봐 주셨던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서. 애가 몇 쪽에서 몇 쪽 해 주셨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전혀 여기는 없고 인원이 많아서 못 하고. (M)

울고 달래기는커녕 바보 같은 게 왜 울고 있냐며, 바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도 부모한테 사과하라 해가지고 학교 찾아가고 부모한테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전혀 개선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고. (중략) 오카리나 수업 안 듣고 반에 책이라도 읽으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돌봄 하는 이상 그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 선생님 개선에 뭐 몇 번 말은 했으나 선생님도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꿀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돌봄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도 일을 시작하면서 돌봄 가져와 하니까 자기는 절대 안 다니겠다고 차라리 학원을 더 다니겠다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학원을 세네 개 더 땡기더라도 저는 학원을 선택했고 돌봄 그냥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J)

니 애만 안 한다고 해서 안 된다. 너 애가 안 한다 카면 솔직히 딱 자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그 수업 들으려고 하는 친구 없다. 좋아하는 친구 없다. 너 애 하나 안 한다고 하면 모두 다 똑같이 덩달아 안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기가 차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수업 안 들으려면 돌봄에 참여할 수 없다. 너가 선택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J)

○ 만족스럽지 못한 프로그램 내용

- 대부분의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 개인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음. 프로그램 강사 계약이 1년 단위라는 것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불만으로 보고하고 있음. (C)는 돌봄교실에서의 시간이 짜임새있게 구성이 되기 보다는 그저 교구하고 책읽고 하는 정적인 활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함. (J)는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아이의 개인적 선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채 오카리나 수업을 들으며 잘 하지 못했을 때 면박을 줘서 돌봄을 싫어하게 된 경험도 있었다고 함. 개인에게 참여와 미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음. (H)도 마찬가지로 교실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없음을 이야기함. (D)는 무료 프로그램 보다 부모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적으로 나온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며 어떤 곳은 아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었음. 그러나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 아이의 특성이나 개인적 선호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음.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지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구하고 놀고 책읽고 이게 다예요. (C)

오카리나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 코로나인데 뭘 불고 있냐 마스크 내려서. 근데 마스크 안 내리고 입에 안 불고 입에 갖다 대는 척해서 손 모양으로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수업을 해야 되는지 어이가 없고... 그냥 코로나니까 안 그래도 침으로 부르는 거니까 그게 안 돼서 마스크 낀 채로 그냥 시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지.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하냐 애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어하겠어요. 그래서 돌봄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면서까지 오카리나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게 계약을 해서.. (J)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그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돌봄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학교 학칙이라고 하니까... 저는 학교가 여기밖에 몰라서 학칙이다 학교 룰이다 하면 아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J)

선생님께서도 굳이 강요 안 하고 수업 듣기 싫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이 있거든요. 그 교실에서 니 하고 싶은 거 해 이라고 혼자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찌다가 한 번씩

아예 안 들을 순 없으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라고. (H)

전면 무상이라서 질적으로 이렇게 낮은건지 내새끼 맡기는데 돈 한달에 2-30 벌수도 있는거고 차라리 비용을 조금 드리더라도....질적으로 이 돈을 내더라도 덜 아깝다는 생각만 들어도 좋겠네요. 제 돈을 내고 애를 맡기는게 갑질이라면 갑질일까 돈을 내야만 그 사람들에게 할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야만 애들을 좀 늦게까지 보더라도 애들을 좀 잘 케어하지 않을까요? (D)

○ 공적 돌봄에 대한 편향된 시선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계층의식

- 학교내 공적돌봄 선발의 우선순위가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등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공적돌봄에 대한 일부 편향된 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B)는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라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부모가 일을 해서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것 뿐인데 주변에서 결손가정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돌봄교사나 담임교사, 같은반 친구들도 우리 아이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음. (H)는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아이라는 주변의 인식이 아이에게도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얘기하였음. 부모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과 이해 부족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음. (N)은 돌봄을 보내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주변의 인식도 있었는데 사교육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함.
- 공적돌봄에 대한 편향된 시선은 한정된 대상으로 인하여 선발과정에서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층이며 가정에서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방임된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그 안에서 맞벌이나 한부모나 저소득이나,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다양한 계층의식이 공존함. 이는 한정된 선발체계와 낮은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돌봄교실이라면서 약간의 견해? 애는... 저희 가족 자체가 왜 맞벌이나, 한부모나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웬지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결손이 있는 애다 라는 인식이 그냥 저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종락) 예를 들어서 엄마들끼리도 이제 왜 일부러 돌봄교실 안 보낸다, 왜 그러냐 하니까 결손 가정의 아이들과 섞이는 게 싫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고 그래서 굳이 안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런 걸 듣고 우려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맞벌이라 그런 건데 혹여나 좀 물들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지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결손이 있는 애다라는 인식이



그냥 저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B)

돌봄을 보내지 않는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냥 안 보내면 안 되냐. 뭐 혹시나 니가 마음 아파할까 봐 얘기는 안 했는데 아이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학교 마치고 누가 지나가는데 재는 돌봄 가는 애야, 돌봄 가는 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 그게 왜? 이랬더니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재는 돌봄 가는 애야, 돌봄 가는 애. 애들 사이에서 돌봄은 인식이 썩 좋지 않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돌봄 교실하는 애들은 엄마의 울타리 밖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보낼 수도 일을 그만두고 그 시선 하나 때문에 애 케어할 수도 없고. 그게 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H)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방과 후를 하는 이유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그게. 이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올해 좀 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인식.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거를 이제 다 할인을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가지고 혜택을 받으니까 자기는 다 신청을 하는 거야.(N)

돌봄 교실에 대한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돌봄 교실 보낸다고 하면 웬지 사람들의 대한 인식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애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직접 같이 접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보는 느낌도 드니까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B)

### 3. 대구시 공적돌봄에 대한 개선의견

#### □ 학습보다는 아이의 안전한 케어가 선호됨

##### ○ 시간과 공간에서 유연한 돌봄교실

-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적 돌봄의 경직성을 확인하였음. 시간과 공간에서 유연한 공적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됨. 돌봄시간의 확대 및 오전돌봄, 단기간 돌봄 등 개별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유연성 있는 운영을 원함. 돌봄이 일정 기간동안 필요하거나 하루에 30분, 40분 정도로 짧은 시간의 돌봄을 위해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인해 공적돌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용하면서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C)의 경우 학교에 학생 수가 점차 적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빈 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 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초등학교에도 도입하여 돌봄교실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데 지원하고 교실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방학 중에도 자유롭게 이용하되, 6학년이라도 아직 어린 학생이기에 학년 제한을 철회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도 증진시키고 아이들이 만족할만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도 함께 언급함. (N)은 공적돌봄의 확대를 주장하며 아이들에게 열려있고 편안한 공간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함.

유치원 돌봄은 대체 기간제 교사 몇 달씩 쓰면서 지원받으면서 방학 때도 노는 교실이 있으면 학교에 되도록 있을 수 있게 그림 미디어 노출도 덜하고 이러면서 좋아질텐데. 친구들도 만나고... 교구만 비치해봐도 애들이 할게 많거든요. (C)

솔직히 너무 오래걸리고 힘들고... 방학때는 교실수를 좀 늘려서 1에서 6학년까지 올 수 있는 애들은 좀 올 수 있게. 방학중에 저학년은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할 거 같고 오전중에. 학교에서 요새는 학교에서는 자유수영도 안하잖아요. 생존수영도 안하고 하니까 뭔가를 함께하면 좋으니까 테니스나 그런것도 많던데 그런거 좀 활용해서 애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많이 돌봐주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크죠. (C)

공적돌봄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은 지금 학교의 돌봄교실까지 안가봐서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들어가서.. 근데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 저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돌봄교실을 가보긴 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지난 학교랑 많이 다르다 해야하나... 선생님의 성향도 있고 학교장 성향도 있고, 돌봄교실은 다 다른거 같더라고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갓 올라온 애들이니까 좀 더 놀이 위주. 돌봄이니까 그렇게 공부 안해도 되고 장난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더 노는 분위기. 놀이 같은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N)

#### ○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 3장 양적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이용을 했던 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이 34.2%였고, 학교에 위치하여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질적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공적돌봄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공적돌봄기관으로서의 초등돌봄교실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로서의 기능 수행을 기대하고 있음.
- (D)는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장하였음.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따라 시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야기 함. (H)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의

경우 집에서나 공적돌봄에서 케어가 안되면 결국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배회하게 되고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려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더라도 학교 안에 있다는 울타리의 기능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 함. 추가적으로 (E)의 경우 학교 도서관에서의 돌봄기능에 대해 주장하고 있음. 공적돌봄의 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의 경우 사교육으로의 연계시간을 도서관이 전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무는 시간에 따라 학부모는 아이의 행방에 대해 불안하게 되고, 연계되는 학원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함.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시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연계차원의 인력이 배치된다면 믿고 맡기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요구할 수 있는거 같아요. 아예 제도적으로 없게 문제니까. 4시에 애들은 오고 엄마는 6시에 오는게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좀 선택해서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더라도 엄마들이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는게 학교인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학원이나 이런데보다 학교에서 그런 기능을 해주면 사실 애들이 있던 곳에서 계속 있는게 좋고,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공간이다 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이걸 못 주는거예요. 네. 제 생각에도 앞으로도 계속 돌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거고 일하는 엄마들은 여전히 많고.. 지금도 다 소화가 안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거를 시에서 조금 더 많이 해야될거 같아요. 어. 그리고 계속 많아질거예요. 이런 것들이.. (D)

학원을 뭐 형편이 어렵거나 그래서 사교육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같아요. 5, 6학년이라도 부모님 일하실 때 학교 갔다 와서 시간 혼자 떼워서 보내는 아이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밖에서 혼자서 다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니 내가 만약에 형편이 안 좋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되게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아이 혼자서 집에 또 어디야? 친구들이랑 놀면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돌봄 교실에 있으면 놀더라도 종이 접기를 하든 책을 읽든지 하면서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에 보호 하에 있다는 거. 그 이후에 뭐 따뜻한 말이나 정말 부수적인 거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H)

태권도차 30분 남을 때... 그때 도서관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때 딱 도서관에 있는지... 그게 좀 불안하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도서관에 돌봄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사서샘이 매일 오거나 규칙적으로 오는 애들을 파악을 좀 하시고. 하셔도 걱정이 덜 되겠는데 도서관에 갔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도서관 가있어 그래도 좀 불안한거죠. 아까 얘기하신 연계시켜주는 도우미 방과후 그 짜투리 시간에도 도서관 같은데 이런거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E)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

○ 일관성있고 책임성 있는 돌봄체계

- 돌봄체계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체계 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의 필요시 소통창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돌봄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의 학교별 편차문제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임. 정부 부처 산하의 일관된 부서를 설치하여 학교와 돌봄교사, 아이들의 케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일관성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F)의 경우 학교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고 돌봄교사는 애매한 소속감으로 학부모로서 걱정된다고 이야기함. (M)은 돌봄교실의 책임주체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돌봄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각 학교별로 선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역량차이가 발생된다고 보아 주관부서를 두고 선발과 교육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함. (I) 또한 책임부서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돌봄교사와 학부모간 연락체계 마련,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방과후와의 연계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 돌봄교실의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함. 또한 학교마다 다른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K)는 교육적인 이야기보다 학교내 아이의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학부모와 돌봄교실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글쎄요.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돌봄선생님이 학교 교육청 소속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민간인지.. 구청, 시청으로 넘어가나?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다른쪽으로. 그렇게 가려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저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좋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F)

아예 어디다 확실하게 돌봄 교실을 하는 확실한 뭔가가 있으셔서 거기서 책임을 지셔야지 보통은 다 거의는 학교 재량이에요, 교장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교육청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항상 문제가 다르면 떠넘기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내려면 어떤 곳에서 딱 그 커리큘럼을 돌봄 교실은 뽑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보시고 보통 교장 선생님이 그게 아니면 날라가는 거니까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교장 선생님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애만 봐 주면 되지, 이러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한 힘이 있는 곳에서 전체를 다 각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M)

학교 조금 재량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해 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문제에서. 휴대폰 문제, 방과후 문제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딱 연락을 어디로 해야 될지. 전화번호 오픈 문제. 그걸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모르니까 담임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전화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알려 주거든요. 돌봄 교실이면 아이가 몇 실인지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이런 것도 딱 정보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I)

학교에서 쓴 프로그램은 있지만 교육적인 얘기는 해줘요. 엄마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돌봄에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먹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런 거잖아요. 엄마들의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여론화되고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는데..(중략) 학교가 그렇게 융통성 있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들어 줘서 좋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너희가 한다 이런 주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급식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걸 그 누구 하나 건의하는 사람이 없겠죠. 물 들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K)

### ○ 개별 시스템간 유기적 연계

- 돌봄을 둘러싼 각 시스템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필요함.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방과 후교사와 돌봄교사, 돌봄교사와 담임교사, 돌봄교사와 학부모라는 각 체계간 책임소재의 불분명은 실제 돌봄교실 이용자의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음. 책임소재 회피를 벗어나 체계와 체계 간 연결과 끊임없는 소통은 매우 중요함. 교장 이하 각 교사들의 인식도 돌봄교실이 더이상 나오는 무관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 여기는 것을 떠나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연속이라는 연속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함. 공급자 중심으로 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되도록 각 체계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N)은 각 체계가 별개로 운영되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며 총 책임자의 부재를 보는 듯 하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별개의 운영체계들은 누구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걸도는 느낌이라고 비유하고 있음. (H)의 경우 알림장이 온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거나 불만사항에 대해 표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마음놓고 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음.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짜투리 시간 있나 이거 시간 들쭉날쭉한 거. 이런 거 학교랑 돌봄이랑 방과 후가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도 또 독단적인 행위를. 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이게 또 학교 안에 교육 같은 데도 이걸 별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너무 헛갈렸던 게 방과 후를 보냈는데 방과후 선생님은 또 별개인 거예요. 담임 선생님하고 전혀 상관없는...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안 가게 되면은 이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해야 된단 거. 그러니까 총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N)

그게 누구 영역이나 했을 때 참 그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느낌을 뭐라고 걸도는데 다 걸도는 느낌. 정규 수업도 걸돌고 돌봄도 걸돌고, 방과 후도 보면 이렇게 걸도는 느낌... (N)

지금은 알림장이 온라인으로 오니까 체크하고 말았는데 적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여나 그 뭐지 예체능 가르쳐 오시는 외부 강사분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죠. 불만 적어 버리면 누군지 딱 티가 나는데. 그렇게 소통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H)

□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함

○ 성의있는 간식

- 공적돌봄에서 제공되는 간식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이 있고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남. 아이의 입맛이나 취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음식의 영양균형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함.
- (B)는 간식으로 성장기 아이를 위한 우유 제공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음. 아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함. 유료로 이용하여 개인소유인 간식에 대해 학교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오히려 간식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었다고 설명함. 이러한 관행으로 볼 때 돌봄교실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아동 권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F) 또한 간식의 질이 너무도 낮다고 하며 간식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램으로 이야기 함. (K)(H)는 방학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도시락을 싸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출근준비와 아이 등교 준비로 버거운 아침시간의 추가적인 과업이 가중되어 방학중 급식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함.

저는 돌봄에서 우유 간식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우유를 좋아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애들의 건강으로는 우유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걸 건의를 해 볼까... 그냥 하다가 다른 학교도 다들 비슷해서 제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만 사건이 있었고, 제가 그러면 혹시 애가 음료를 못 먹으니 그럼 그 음료는 저희 그냥 따지도 않은 거니 좀 보내 달라 했더니 또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실온인 것 같다. 제가 그 분야는 잘 알기 때문에 실온이라서 괜찮다 했더니 이렇게 개개인별로 해 버리면 하기가 어렵다, 학교 방침이다 하면서 안 된다길래 알겠다 하고 그 달 돈은 어쩔 수 없고. (B)

그는 간식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많이 프로그램 같은 게 축소됐지만. 네 이렇게 그게 최소한의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 시간 효율이 아깝지 않도록 그냥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때우고 오는 것만 나도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조금 해주고. (F)

돌봄반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서 놀랐죠. 저는 이걸 내년까지 돌봄을 이용할 거니까 방학 때마다 도시락을 싸야겠죠? 그래서 이걸 진짜 아니다. 참 방법이 없네. 근처에 반찬집에 문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혹시 안 되냐고. 이런 문의를 너무 많는다고, 지금. 워킹맘들이 많아서 근데 안 된다는 식으로. 다 상한다고. 그 보온 도시락을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겨울엔 음식이 식을 수도 있고. 이 도시락 비용이랑 이런 게 나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지금

저도 보온 도시락통에 도시락 싸 주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저는 차라리 그냥 돈을 달라고 하지. 급식비를 달라고 하고 급식을 배달시켜서 먹지 이거를 왜 부모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러면서 공고가 와요. 여름이니까 상하니까 나물 이런 거 넣지 말라고. 반찬에. 얼마나 불안해요. 소세지 같은 거 구워 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상하니까... (K)

돈을 내고서라도 밥을 제공해 주는 게 있다면 돈을 내고서라도 애를 보낼 것 같거든요. 아침에 바쁘고 밥 신경 쓰고 도시락 반찬 신경 쓰고 하느니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데 뭐 돈을 더 내고 아이가 거기서 밥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돌봄 교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H)

#### ○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 공적돌봄에서의 프로그램 제공이 학교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었음.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제공하는 학교도 있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일방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실시로 개인의 욕구반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음. 공적돌봄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 및 경험의 증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적돌봄에서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도 제기됨.
- (D)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사교육 수준의 질높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의 충족을 위해 전문강사진의 공급이 필요함을 이야기함. (F)는 아이들의 활동부족으로 인해 정적인 활동 이외에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원함. (J)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무시된 채 수업에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이 민망하니까,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강사와 협약이 되어 있고 학생들도 돌봄교실에 참여하기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방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음.

돌봄교사들이 다 공무원처럼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정말 수준이 꽤 있는 엄마들도 대학 다 나와서 그정도의 그런 스킬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애들을 좀 질높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케어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시간 떴우기.. 되게 엄마들이 다 마음이 불편하니 돌봄을 보내는건데 거기서는 애들 대충 잡고만 있는거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할거면 학원을 보내는게 낫지.. 그러면 돌벌어서 애들 학원비만 내게 되는거고...(D)

돌봄 아이들만의 이제 조금 하루종일 있는 애들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힘드니까 출넘기라도 단 운동장에 나가서 주는 길이라도 신체 활동이라도 조금만 하면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수치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애들이 진짜 계속 정적인 것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뭐 기운이 좀 다운되잖아요. (F)

그냥 한다는 말이 어머니 코로나 조금만 잠잠해지면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안 재미있어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시겠어요? 이게 대책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재미있겠냐고요. 마스크 쓴 채로 그냥 이렇게 시늉만 하는데 손가락으로. 누가 알겠냐고요, 진짜. 그 손가락을 못 짚는다고 화를 그렇게 내니까... (J)

### ○ 따뜻하고 전문적인 교사

-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돌봄교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전문적인 기초지식과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사 양성과 따뜻한 정서와 포용력 등의 돌봄교사로서의 자질이 제고되어야 함. 아이들의 이동을 돕거나 전반적인 케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의 채용이 필요함. 특히 아이들이 주로 짜투리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에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돌봄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J)는 돌봄교사의 냉대로 인해 아이의 돌봄을 중단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최소한 교사의 거짓된 따뜻함이라도 필요하다고 성토했음. (M)은 돌봄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사전의 이해와 충분한 교육을 받은 교사의 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함. 학교내 다른 교사들과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아이가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학교내 업무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였음. (F)는 방과후 교사와 돌봄교사의 업무 집중을 위하여 이동을 위한 보조교사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함. (E)는 인력추가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AI를 활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안하였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하고 배려하고 그게 제일 좋죠. 솔직히 뭘 잘해 주고 뭘 물질적으로 잘해 줘야 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감사 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네, 네.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 딴 거 없고. 말투 자체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하시니까 제가 들어도 그렇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거짓된 따뜻함이라도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략) 전담 선생님조차도 애들을 위하거나 뭐 살갑게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 보이고 되게 진짜 무미건조하게 그냥 너무 형식상 딱딱 진짜... 저렇게 그냥 이런 생각이 요즘 보육 교사들 체벌하고 폭행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저러고 딴 일 하지 왜 일하나 싶잖아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것도 정서적 학대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사람 은 왜 그러냐. 자기도 손자 손녀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진짜 적성에 안 맞으면 딴 일 찾지 왜 저러냐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진짜... 아무튼 속상하고 그렇죠. (J)

그나마 일이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좀 해야 되고. 좀 하여튼 뭔가가 좀 그런 게 좀 있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편차가 심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거를 조금 어쨌든 직장인들이시겠지만 어린 애들이니까요. 조금 그 수준에 맞추고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선생님들이 너무 다르시니까 이런 게 조금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어쩔 수 없이 교육으로 약간은 평준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돌봄교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뽑을 때 선생님을 봤을 때. 그런 게 너무 선생님도 좀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들긴 했어요. (중략) 선생님을 뽑을 때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봐 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전제 하에 뽑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시는 분도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르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이 이게 많아서 여기서 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위에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알겠어요. 여자고 주부고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좁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좋고 하는데 뽑을 때 그건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위주로 해 주시고 이런 건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조금 이게 뽑을 때 진행이 되어야 할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학교랑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이랑 그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돌봄 선생님이랑 안 맞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은 그런 거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게 보이더라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학교에서 그 부분 선생님을 어떤 수준에서 뽑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M)

도우미가 좀 더 필요할거 같아요. 보조교사가 쪽 돌면서 교실에서 이동하는 아이들 챙겨서 같이 움직이고.. 이런거 좋을거 같아요. 돌봄선생님은 아이들 봐야하고 방과후는 수업해야 하고 담임쌤은 애들이 너무 많고... 날마다 방과후가 똑같은게 있는게 아니고 날마다 다르니까.. (F)

그거는 있잖아요. 안심알리미 그래가지고 sk같은거 연계해가지고 애가 등교하면 등교했습니다. 하교하면 하교했습니다라고 앱에서 떠요. 무상으로 되요. 학교에서 이게 대구만 되는건 아닌거 같고. 대구도 학교마다 다 따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1년동안 서비스를 하는거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돌봄까지 추가해서 해주면..(E)

방학때 갑자기 시간이 바뀌면 제가 인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방과후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방과후 선생님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는거... 그러면 스케줄 다시 짜야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방학 때도 바꾸지 말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맞다. 제가 8시반까지 출근을 하잖아요. 방과후 선생님은 그때까지 출근을 안한단 말이예요.(E)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 2018년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급확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적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효용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출생율 감소와 함께 대구시 초등학생 수 역시 지속 감소의 추세에 있음
    - 2020년 현재 초등학생 수는 122,587명으로 2012년 기준 16.6% 감소
  - 정부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적돌봄체계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16시부터 보호자 퇴근 이전 시점인 19시까지의 돌봄 공백이 심각함을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를 통해 지역 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대구시는 2020년 용역과제 「대구광역시 온정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대구시 공적돌봄 체계 구축을 모색 중에 있음.
  - 그러나 2020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지역 대유행과 2년간 지속되는 감염사태로 인해 방과후 돌봄의 감염우려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돌봄부담이 가장 높은 초등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시간은 주로 학원이나 돌봄제공시간이 종료된 이후 부모가 퇴근할 시점(오후 4~6시)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초등학생 아동의 주된 방과후 돌봄 공백시간은 오후 4~7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됨.
  - 대구시 초등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자녀의 방과 후 시간대별 시간 활용을 살펴보면 16시까지 방과후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 학습지 등 방문과의 등을 통해 돌봄공백이 적은 편이었지만, 이러한 돌봄체계들이 종료되는 16시부터 부모나 친인척 등이 돌봄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는 18~19시 이전까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본 자료 분석결과,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16~17시에 11.7%, 17~18시에 13.6%였음.
  - 즉, 방과후돌봄 공백은 주로 특정한 시간대(오후 4~7시)에 집중되어 있었음.

- 공적 방과후돌봄은 지역 내 돌봄공백과 돌봄의 요구를 일정수준 충족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음.
  - 공적 방과후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초등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돌봄 공백으로 인해 하루하루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원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믿을 만한 사교육(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전략은 끼니를 챙겨줄 수 있는 태권도 사범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공적돌봄 서비스 신청의 진입장벽이 높았고(“클릭 한 번에 아이 1년이 바뀐”), 각 돌봄제공기관 간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돌봄기관 중복이용 시 이용 전환이 어려워 차라리 하나의 공적돌봄이 종료되면 혼자 방치되거나 보호자가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공적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는 여전히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존재하여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 보호자들은 공적돌봄체계에서 학습이나 교육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각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 돌봄제공자의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가장 바라는 것은 “원하는 시간대 서비스 공급”과 “안전”, 그리고 “높은 서비스의 질”이었음.
  - 보호자들은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아이돌보미서비스 등의 순으로 이용경험이 있었음.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호자들은 느끼고 있었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이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각 제공기관 별 서비스 선택의 사유가 달랐음을 서비스 공급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적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였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서비스 제공시간이 보다 유연하고 돌봄공백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요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초등학생 자녀 중 공적돌봄서비스 이용 신규수요(욕구 미충족)는 전체 초등학생 인구

의 27.5%일 것으로 고려되며, 이 중 돌봄 수요가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초등 1~3학년을 고려할 때 16,943명(2020.12월 인구 기준)의 신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해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적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충족 수요 수준이 높았으며, 신규 이용의사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었음.
- 신규 수요(현재 미이용, 코로나19 종료 이후 이용의사 있음)가 전체의 27.5%이며, 이는 실제로 공적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약 1만~1만 5천 명 가량의 신규 가수요에 대한 공적돌봄 공급확대가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공적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 조사결과, 공적돌봄 서비스 제공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용률이 가장 높은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가장 큰 불만족의 요인은 ①높은 진입장벽, ②돌봄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로 인한 돌봄의 낮은 질, ③공적돌봄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④돌봄서비스 간 낮은 연계성, ⑤돌봄시간의 제한(때로는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 ⑥간식 등 제공되는 음식의 질 등이었음.

## 제2절 제언

### □ 대구시 공적돌봄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 현재 대구시의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당 조례로는 방과후돌봄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취약함.
- 대구시 방과후 공적돌봄 서비스 확대공급을 위해서는 초등 방과후 온종일 돌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대구시 중구에서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임.
  - 조례에는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정의, 지원범위, 지원내역, 지자체의 역할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체계적 방과후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대구시 및 각 구군 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협의체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군,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 공적돌봄 공급의 확대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1/4 가량(본 연구결과 27.5%)이 공적돌봄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경우 이용의사가 있는 신규 수요임을 고려하여 공적돌봄 공급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공적돌봄 확대방안을 모색할 때, 약 1만~1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공적돌봄 공급이 단계적으로 우선 확대될 필요가 있음<sup>2)</sup>.
- 신규 공적돌봄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임.

### □ 공적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의 유연화 (오후 4시 이후와 방학 중 긴급돌봄)

- 현재의 공적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필요한 때(특히 오후 4시~7시 사이) 제공되지 않아 단순 공급확대로는 돌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2) 필수 신규 공적돌봄 공급 추정치는 연구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규수요를 고려해 1만 명의 공급확대를 제안하였음. 배성우 외(2020)의 연구에서는 대구시에서 2020년 현재 17,937명에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초등학생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최대 29,181명까지 돌봄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므로(필수 수요 21.8%를 고려 시), 최대 11,244명의 신규 공적돌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배성우 외, 2020)

- 현재 공적돌봄 내에서 축소공급되어 있는 오후 4시 이후의 시간대 공적돌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인력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학교돌봄 이외의 마을돌봄을 통해 오후 4시 이후 보호자 퇴근 전까지의 돌봄공급이 집중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돌봄제공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 학부모들은 공적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질 높은 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안전’, ‘따뜻하고 편안함’, ‘질 높은 간식 및 식사’ 등과 같은 것이 제시됨.
- 이를 위해서는 돌봄 공급인력의 확대, 돌봄요구도가 높아지는 시간에 집중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근로가 가능한 신규 돌봄제공인력 확보 등이 필요함.
- 지역 내 관련 자격소지자(보육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등) 혹은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 제공 보조인력으로 공급하여 돌봄공급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의 돌봄제공인력(초등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처우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며,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대구형 방과후돌봄 서비스 인증 및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공적 방과후돌봄 서비스 질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필수적 요건들에 대해 인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시설 기본요건에 관한 평가에 해당하며 방과후 공적돌봄서비스에 관한 인증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주관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상이하여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인증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대구시 자체적인 방과후돌봄 서비스 인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증체계 도입 이후 관련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해 질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대구 방과후 돌봄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 및 앱 개발

- 본 연구에서 방과후돌봄 관련 정보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보호자들은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탈락할 경우 다른 돌봄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http://www.afterschool.go.kr))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대구시 방과후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돌봄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고, 2021.11.10. 현재 아래 그림 5-1과 같이 457개 기관이 확인됨.



〈그림 5-1〉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대구시 방과후돌봄기관 검색 화면(21.11.10 현재)

- 각 기관 별로 자체적인 브로슈어를 발행하여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각 기관 별 정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자녀 돌봄에 대한 신청접수 및 잔여 정원 현황 등은 일일이 전화 문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 대구시 자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돌봄 신청뿐만 아니라 해당 돌봄 기관의 정보, 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문헌

대구통계 (2021)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tat.daegu.go.kr/statsPublication/populationStats.do#> 2021.11.1. 검색

배성우, 이경은, 서혜전, 최권호. (2020). 대구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21).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이혜숙. (2019).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부록1: 서울시 성북구 아이돌봄 통합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10.05 조례 제13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3.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돌봄시설 또는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부모
5.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지도·점검·평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결산)** 예산을 지원받는 돌봄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협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2: 충청남도 아이돌봄 통합지원 조례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1-07-20 조례 제 49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12539;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조례 제4990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과업참여자

###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

연구대표자 : 의원 배지숙

공동참여자 : 의원 황순자

### 연구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최권호(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강금희(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주연선(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이현아(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부 석사과정)